



# 時 計 塔

SIGETOP



2019년 4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6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鄭均熙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 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 36차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지난 2019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에서 36차 학술대회와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서울에서 홍정용 총동창회장장과 신찬수 학장, 서창석 병원장과 모교 교수들 여러분들이 먼 길을 왔으며 미주 전역에서는 Maryland에서 온 세계적인 학자이며 가장 연장자인 57년 졸업한 임종식 교수로부터 가장 연하의 강사로는 2009년 졸업한 Virginia Chapter의 송경민 동문을 포함하여 2018년 졸업한 신상하 동문 등 부부 총 14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틀에 걸친 Non-CME 교양 강의와 Medical Scientific Lectures가 3일에 걸쳐 있었으며 매일 저녁 만찬이 열렸다. 만찬에서는 젊은 서울의대 후배 동문들이 Violin, Piano, Cello 등을 멋있게 연주하여 저절로 그 친근한 곡이 청중들의 입에서 따라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Classical 음악을 선물했다. 다채로운 여흥과 댄스, 친목으로 뜻깊은 모임은 밤 11시까지 계속되었다.

행사 중에 모교 신찬수 학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제 5회를 맞이하는 함춘미주공로상에는 우리의 동창회의 보물과 같은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인 시계탑의 편집장으로 11년간 수고한 김병석(59), 34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한 최준희(64) 그리고 44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또 현재 시계탑 편집장으로 일하는 서윤석(68), 이 세 동문들이 수상을 했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원(약 미화 4,500불)씩이 수여되었다. 5년 전에 시작된 함춘미주공로상은 모교 의대학장과 그 심사위원회에서 해마다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에서 3월 동창의 날에 수여되는 동아시아학상을 비롯한 함춘의학상의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강대회 전 학장 때인 5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작했다. 따라서 이 영예로운 공로상은 수상대상이 동창회발전에 기여한 미주동문에만 국한된다. 1회에는 이만택(58), 2회에는 김의신(66), 조세진(69), 시계탑 편집회, 3회에는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 제4회에는 임종식(57),

한기현(63), 김성환(71) 동문 등이 수상했다.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상금을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도서관 건축기금이나 장학금 또는 미주총동창회 기금에 기부했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어서 영예의 제 2회 학장상에 오무연(89) 동문이 수상했다. 1회에는 김원정(75) 동문이 작년에 수상했다.

또한 정균희 미주총동창회장이 한승신 전 회장, CME 담당하여 온 신규호 박사와 주광국 재무 등 전 46기 회장단과 또 이번에 기부금을 많이 낸 차민영 동문에게 드리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비가 계속되던 기후관계와 숫자는 많지만 기동력이 점차로 연로해가는 남가주 지역 동문들의 건강상 이유로 저조했으며 축소된 인원만 참가한 골프대회는 미미했다. 컨벤션 후의 여행도 지팡이가 저조하여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학술대회가 이번에 주최 측의 노력과 GP (Green Project) Fund의 도움으로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빛을 보았다. 수년전 이를 예측했던 서인석(73) 43기 미주총동창회장이 시작한 젊은 동문들에 대한 애정과 그후의 여러 회장들과 특히 지난 46기 한승신 미주총동창회장과 그의 부인이자 동문인 김정아님의 물심양면의 희생으로 이번에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것이 우리 미주동창회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일 것이다.

외부 강사로 여러분이 왔는데 그중 12대 전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장 오인환 박사의 한국인의 Think Tank 강의가 있었으며, Stanford 대학병원의 Samuel So 교수가 Hepatitis, Hepatic Cancer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미국내의 Asian Population에 대한 차별적 문제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때 당면한 미국내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설명했다. 법을 개정하거나 보험회사의 변화를 얻기는 힘들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즉 CDC 혹은 지역사회와 환자나 의사들의 계몽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험담을 그는 이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아직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중년층 이

상의 아시아 사람들의 Hepatitis 스크린으로 보균자들의 색출과 치료, 일반인의 예방접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화내과 전문의인 Stanford의 Joo-Ha Hwang 교수의 Stomach Cancer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강연과 대답은 아주 유익한 것이었으며 그 대답을 이끌어간 남명호(81) 동문의 유창한 영어와 리더십이 눈에 띄었다.

Healthcare Innovation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춘 송경민(09)을 비롯한 서귀숙(84) 박사 등 여러 동문들의 강의가 참 놀랍고도 좋았고 젊은 동문들이 참석하기 쉽게 마련된 24일 일요일 아침에는 회의와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교기를 들고 입장했던 MGH의 박종철(99) 동문을 비롯한 여러 강사진들의 질병에 대한 연구발표와 의사로서 미국에서 개척해나가야 하는 힘든 Career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선규(89) 동문이 이번에 Scientific Chair의 중임을 맡고 수고했다.

참고로 이번 모임에서는 AASCDTF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ease Task Force)이 중요한 의제였으며 임종식(57), 박찬형(62), 한승신(76), 김정아(76), 남명호(81) 동문 등이 그 구성원이며 앞으로의 그 활동과 노력이 우리 미국 아시아 사회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은퇴한 동문부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Non-CME에서는 직업사진사를 능가하는 나두섭(73) 편집위원의 사진이야기, 이원택(71) 시인이자 정신과의사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신분석, 서윤석(68)의 시계탑과 글(시)쓰기 그중에 소개된 젊고 멋있는 John F Kennedy 대통령이 1963년 9월 Amherst College의 Robert Frost Library 기공식에 참석하여 시인, 화가, 음악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끼치는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을 말한 그의 마지막 연설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연설을 한지 두 달 후에 그는 달라스에서 저격된 것이다.

이성길(71) 동문의 마리화나의 근래 상황이 소개되었다. 아직 생소한 의학적인 현실을 잘 설명했다. 이어서 시카고에서 온 박종희(75) 동문이 2003년 무렵에 시작한 시카고의 세종문화행사의 일부인 정형시에 해당되는 우

리나라의 평시조를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에게 세 line(줄)과 meter(음절) 그 형식에 맞게 영문으로 시조를 쓰게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춤과 음악으로도 시조가사를 넣어 작곡하여 관심을 이끌려는 문학사회운동을 소개했다. 이것은 미국사회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교환하는 의미가 깊은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참여하는 그들(특히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국말을 배우게되고 한글로도 시조를 쓰고 감상하는 일도 생기게 되기를 기대한다.

온기철(71) 동문의 청과 조선의 멸망, 최도빈 교수(박은경 편집위원의 부군)의 조선 후기의 회화가 좋았고, 해마다 시계탑에 신년 삽화를 그려주고 이제는 유명한 인물화가로 잘 알려진 김명원(68) 화백의 피카소의 Inspiration와 여인들에 대한 강의가 재미가 있었다. 80이 된 나이에 아메리카 대륙을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아름다운 또 하나의 돌을 찾아서 다닌다는 신선과 같은 손영진(62) 동문의 수석(壽石) 강의가 눈길을 끌었고 또 자랑스러운 동문인 온기철(71) 역사가의 일제강점기의 중국과 한국, 해방정국에 대한 내용은 또다시 많은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안병일(69) 동문이 서울의대 은사인 방사선과 한만청(59년 졸업)교수의 저서 “압과 친구가 되라”를 3년만에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으며 그 책소개가 있었다. 이 책, “Befriending Cancer”를 이 기간중에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아마존에서도 살 수 있다. 이 영어판이 미국에서도 앞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36차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또 하나의 모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가지 우려 속에서도 유유히 유머를 잃지 않은 47대 정균희 회장과 그 임원들, 동창회 사무장 Mrs. Jamie Kim 내외분과 누구보다도 이번 컨벤션 의장으로 불철주야 애쓴 42대 김성환 전회장 내외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글: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

# 2018-2019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9년 3월 21일 4시

장소: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

### 참석자

이만택(58) 김태웅(63) 최준희(64) 서윤석(68) 강창홍(71)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정균희(72) 고용규(73) 전경배(75) 최광휘(76) 안우성(76) 김영애(Mrs. 김성환)



### Proxy:

채규철(59) 이희경(61) 한기현(63) 추재욱(63) 권정덕(64) 허선행(64) 홍선경(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조세진(71) 신규호(68) 신용계(68) 주광국(68) 박승용(71) 오용호(72) 문대욱(73) 한민우(75) 한승신(76) 김동훈(77) 백승원(79) 남명호(81) 이선희(81) 한창규(81) 서귀숙(84) 이선규(89) 박계영(90) 강민중(91) 박종철(99) 백시환(99) 이도은(99) 송경민(09)

1.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정균희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참가한 모든 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과 학술대회 준비에 큰 기여를 한 김성환 convention chair와 Scientific program을 준비한 임원들, Non CME 준비를 한 김영애 여사, CME credit를 UB로부터 받게 arrange를 해주신 신규호 동문에게 감사의 말씀이 있었음.
3. "2018-2019, 제1차 대의원회 회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4. Agenda로 지난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AASCDTF에 대하여 지난 회의 이후 AASCDTF가 한승신(76) 김정아(76) 동문의 generous한 donation으로 기금이 모이고 있으며, 이번 36차 학술대회 Scientific session중에 하나로 이 AASCD가 의논이 되면서 참가하는 상당수의 speaker와 그 외의 참가자들에 대한 점심식사와 저녁 연회 지원이 sponsor의 지원금으로 해결이 될 것 이라는 의논이 있었음.
5. 재무 최광휘(76) 보고: 2019년 3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은행 잔고는 \$243,411이고 Income이 아래와 같이 현 회기에 들어 왔음을 보고함.  
 동창회비 \$55,850 / 36차 학술대회 Convention donation \$42,760 / Scholarship donation \$15,000 / Green Project donation \$3,525 / Charity donation \$1,125 / General

donation \$12,945 / AASCDTF donation \$20,000

- Fund manager에게 지난 회의 마치고 \$12,961을 보냈음을 보고함.
  - 6. Fund Management (존 백 fund manager) 서면 보고:  
 특별 변동이 없이 투자상품이 지속적 이자를 내고 있고, 매년 회기에서 위의 extra를 fund management로 넣는 한 오랜 기간 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이해함.
  - 7. Scholarship Committee (이선희(81) chair와 강민중(91) Co-chair):  
 2차 이사회에 참가하신 김태웅(63) 동문께서 2019년에 마지막 10년 짜의 \$10,000을 내시고, 지난 회의에서 매년 \$6,000씩을 내신다고 하신 것을 매년 \$10,000으로 5년간 내시는 것으로 다시 pledge 하시어, 미주장학생으로 김태웅 장학생 두 명이 각 \$3,000씩 받게 하여 매년 \$4,000씩 남게 되어 2027년까지 미주교포 자녀 2명의 장학생에게 매년 \$3,000의 김태웅 장학금을 수여하게 됨.
  - 8.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58) 동문 보고) :  
 - 미주재단의 총 모금액이 2018년 11million으로. 의대에서 김순균(66) 동문의 70만달러를 정신과 교육연구기금과 분당병원 EMR 연구로 기증 약정하여, 2018년 20만 달러, 2019년 10만 달러가 지불이 되고 분당병원 황희 교수가 2018년 연구 기금으로 6만 달러를 수령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함.  
 - 두바이의 Sheik Khalifa Specialty Hospital에 대한 서울대학병원의 위탁 경영 병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전체 800명의 병원 직원 중 한국인 의사 55명과 간호사와 행정직 200명이 한국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함.
  - 9. Publication committee: 서윤석(68) chair 보고  
 - 시계탑 문집(제 6집)을 발행 준비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는 지난 번 문집 이후 2019년 7월호 까지 게재된 5년간의 원고로 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논한 이후 보고 될 것이라고 함.  
 - 현재 실고 있는 10문 10답의 선배님들의 참여가 왕성하고,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젊은 동문들의 시리즈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함.  
 - 한국 장학생과 미주교포 자녀 장학생에게서 받는 리포트에서도 좋은 내용을 시계탑에 골라 올리고, 다 올리지 못한 것은 주광국, 송경민 동문이 운영 중인 website, snucmaaus.org에 올리고 있음을 보고함.  
 - 동문 중에 좋은 책을 내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를 이 번 학술대회의 Non CME 강의에서 하고자 하신다고 함.
  - 10. Charity committee (최영자(66) chair) 서면 보고:  
 현재 지원을 하는 NYCOCO(뉴욕지체장애아동 지원단체)에서 받은 감사편지를 이사회에 제출함. 이 외의 Charity fund를 더 모을 구상을 하는데 각 지역의 동문들 지원을 호소하셨음.
  - 11. Nominating Committee: 한승신(76) 전임 회장이 참석을 하시지 못하여 2019-2020 차기 회장 후보를 36차 학술대회를 마치고 좁혀진 candidate 중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균희 회장의 감사 인사의 말씀이 모든 36차 학술대회 참석 임원께 있었고, 앞으로 임원이라면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자는 모두의 의견이 있었다.
- 다음 제 2차 대의원회는 6월 8일(토)에 동,서부 연결로 예정이 됨을 다시 알리고, 성공적인 36차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진 촬영 후 회의를 마침.

##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근교 지부 소식



지난 17년간 공백 중이었던 이 지역동창회가 김진수(66) 회장의 동창회의 재기를 주도하는 리더쉽과 조병선(71) 총무의 이에 따른 수고로 7년 전부터 활기를 띠우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남가주지역처럼 많은 동문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으며 연례 골프대회와 정기적인 모임으로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진수 회장단이 그 바톤을 68년 중심의 새 그룹 회장단에게 일임하는 모임에 대한 글과 사진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 글 편집인

###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아난데일에 있는 설악가든에서 있었던 신년 동창회 모임에 많은 동문이 모였습니다. 동문 27명을 포함하여 내외 합쳐서 모두 47명이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회장단은 68년 졸업 동문들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석대표 즉 회장인 서윤석 동문을 중심으로한 9명의 동기들의 회장단 소개가 있었으며 올해의 계획으로는 봄에 동창회모임, 여름에 골프대회, 가을에 동창회모임이 있고 아울러 서울대학교 워싱턴동창회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와 연말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창회 모임소식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Website에도 올렸습니다. 동창회 공식 홈페이지인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click해서 워싱턴동창회 소식 및 미주 총동창회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회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과 같이 \$40로 정했습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하신 동문들은 회비를 내셨지만 부득이 참석 못한 동문들은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계 동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 Young K. Shin, 646 Springvale road, Great Falls, VA 22066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식(57) 김용덕(59) 라길진(59) 이종수(59) 임낙중(59) 한달수(59) 서취열(61) 진창건(61) 고영희(63) 이웅만(64) 이중오(64) 김진수(66) 이동명(66) 김주평(68) 김진홍(68) 김 철(68) 김희주(68) 서윤석(68) 신용계(68) 주광국(68) 김병오(69) 김정환(69) 박수웅(69) 박동수(71) 조병선(71) 박인영(75) 배영훈(75) 주광국(68) 드림

## Virginia Chapter 4월 17일 모임

2019년 4월 17일 Vienna Virginia에 있는 우래옥에서 19명의 동문들과 배우자를 합하여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모임이 열렸다

36차 학술대회 보고와 서울대학교와 대학병원, 서울의대총동창회 소식 전달 그리고 근래에 작고한 7분인 미주동문들에 대한 묵념이 있었고 지난 4-5년간의 이 지역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한 김진수 전 회장한테 드리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김주평(68) 골프 회장이 주도하는 춘계골프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행사는 5월 23일 목요일 Stonewall Golf Course, Gainesville, Virginia에서 있을 예정이다.

참석한 모든 분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Master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오신 임종식(57) 선배님의 이야기이다. 지난 주에 아버지를 위하여 티켓을 마련한 착한 아들을 둔 임선배님의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축하해 드렸다. 고영희(63), 진창건(61) 두 분도 Tiger Woods가 처음 Master를 이겼을때 그 Master를 Augusta에서 보았다고 자랑했다. 이어서 주광국, 박인영, Mrs. 주광국의 유모어와 노래가 따뜻한 이 모임을 더욱 빛나게 했다. 전 부회장이자 총무로 수고했던 조병선(71)님은 부득이 이날 참석이 불가하여 그 감사패는 따로 전달 것이다.

참석하신 동문들은 앞줄부터 (좌에서 우로) 김용덕(59) 이병봉(63) 나길진(59) 임종식(57) 한달수(59) 고재경(60) 진창건(61) / 뒷줄 (좌에서 우로) 서윤석(68) 김희주(68) 신용계(68) 유용준(74) 박수웅(69) 김진수(66) 주광국(68) 김철(68) 고영희(63) 박인영(75) 김주평(68). 다수 의견으로 부인들 사진은 없고, 정재성(68)동문은 참가했으나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 글: 시계탑 편집인 서윤석



김진수 전회장께 감사패 증정



Master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설명하시는 임종식 선배님



### 제5회 합춘미주공로상, 제회 2회 학장상 수상자

제36차 학술대회에서 제5회 합춘공로상이 시계탑 편집인으로 11년간 봉사해온 김병석(59)동문, 미주총동창회장으로 수고해온 최준희(64) 동문과 미주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 시계탑 편집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서윤석(68) 동문 등에게 상장과 상금 5백만원씩 수여되었다. 수여받은 세 동문 모두 상금 전액을 General Fund로 회사했다.

작년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한 학장상에는 오무연(89)동문이 수여했다. 오 동문 역시 상금으로 받은 500달러를 Green Project 기금으로 회사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합춘미주공로상을 수상한 김병석, 최준희, 서윤석 동문과 학장상을 수상한 오무연 동문.



### 뉴욕 맨하탄 거주 동문 모임

올해 1월 4일(금요일)에 뉴욕 맨하탄 거주 서울의대 동문들이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상진(59) 동문, 권정덕(64)/홍선경(64) 부부, 김건언(65)/김은경 부부, 박성철 (99)/최문정 부부가 참석하였으며, 역시 맨하탄에 거주하는 서경화(59) 동문은 Florida의 Naples에서 피한(避寒)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맨하탄 Chinatown에 자리잡은 Hwa Yuan Szechuan restaurant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이 식당이 뉴욕에서 cold sesame noodle을 처음 선보인 음식점이라는 강상진 동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천식 요리와 Beijing Duck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맛보며 담소를 나누었으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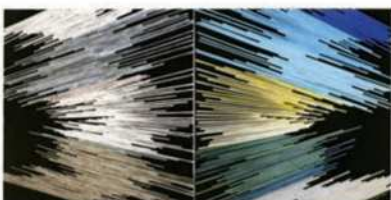
### 김성수(65) 동문 Hole in one 소식

Denver에 살면서, Laguna Woods, CA에 계절적으로 거주하는 김성수(65) 동문이 지난 3월 25일 hole in one을 하였다. Laguna Woods Golf Club #2 Course의 6th hole에서 영광을 차지하였다.

양운택(64), 김건언(65), 채도경(65) 정상국(66) 등 여러 동문들과 같이 Uphill 155 yard에서 Talor Made 채와 Titleist 공을 사용했다고 했다. 김성수 동문 내외는 Laguna Woods에서, 특히 서울의대 동문을 위하여 오랫동안 남다른 선행과 수고를 해온 동문이다.



### 화가 원선영 박사(이태안 동문 부인)의 서양화 개인전



이태안(67) 동문의 부인 화가 원선영 박사의 서양화 개인전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Riverside Gallery, Hackensack, NJ에서 열린다. 오프닝 리셉션은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게재한 작품은 My World I and II, 2018

### 2019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외 의학연구 장학생 수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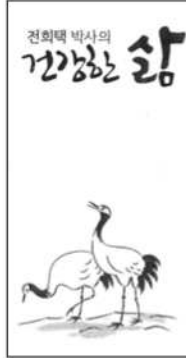


### 역사의 뒀안길에서 잃어버렸던 한국 문학의 소중한 한 조각 정영현 『꽃과 제물』 반세기 만에 부활하다



1968년 11월 『여성동아』 복간 기념 공모의 첫 당선작인 정영현의 『꽃과 제물』이 출간됐다. 해당 공모전은 1970년 박완서가 등단하는 등 꾸준히 여성 문인을 배출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과 제물』은 당시 『여성동아』에 부록으로 게재되었으나, 이후 작가가 도미하면서 한국 문학사에서 잊혀왔다. 문학과지성사에서는 50년이 지난 2018년, 묻혀 있던 4·19 문학의 한 장면을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이 책은 드물게도 4·19 혁명의 역사적 순간들을 정면으로 재현하여 보여준 장편소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단순히 1960년뿐 아니라 일제하 식민 시대, 6·25 전쟁의 참혹상, 분단체제의 비극 등 우리 민족이 겪어온 격동의 역사가 한 가족 삼대를 정통으로



### 전희택(64) 동문의 저서 '건강한 삶' 소개

이원택(71, 남가주)

1974년 UCLA에서 신경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Northridge 지역에서 40년간 개업 후 2013년에 은퇴한 우리의 '팔방미인' 전희택 동문이 드디어 문학에도 손을 대 건강에세이 <건강한 삶>을 출판하고 3월 2일 LA의 Oxford Palace에서 120여 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풍성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Dr. 전의 글을 읽어보니 의사 수필가로서 가져야 할 과학성, 철학적성, 그리고 문학성을 골고루 갖춘 그야말로 글을 쓰는 의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교양과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기성 작가 못지않게 풀어내었는데 이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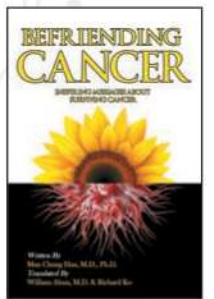
그리고 그는 애처가의 경지를 넘어 가히 공처가라고 불릴 만도 한데 예를 들면 <남과 여>란 수필에서 한자의 사내(男)는 열심히 밭을 갈고 계집(女)는 교태를 부리는 모습을 표현한 상형문자에서 나왔다고 하고는 남자가 잘돼도 여자, 못돼도 여자 탓이라고 자기가 이만큼 된 것은 다 마나님 덕택이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좌우간 이 책의 흐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지 않고 음양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여자는 남자를 잘 보살피고 주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나니 모두들 마나님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살아가야 하겠다. 그는 "주의를 돌려보라, 오래 산 사람은 다 공처가들이다." 라고 말했다.

속표지에 나오는 두 마리 두루미 중 왼쪽이 수놈·오른쪽이 암놈이다. 출판기념회 때 은발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전 동문을 보니 어찌 그리 '고고한 학'과 비슷한지, 항상 학과 같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학과 같이 만수무강하기를 빌어마지않는다. 그는 가히 우리 서울 의대의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희택 동문의 e-mail 주소는 edhjeon@yahoo.com이다.



### 안병일 동문(69)의 번역서 BEFRIENDING CANCER



남가주에서 마취과를 개업하고 있는 안병일(69) 동문은 수년 전 서울의대 방사선과 한만청(59) 동문의 수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란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글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하고 약 2년간 씨름을 한 결과 작년 11월 드디어 NY의 Page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다.

필자도 번역을 해 보아서 알지만 사실 번역은 창작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더라도 원작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명강의로 소문났던 한 동문은 1998년 폐에 전이된 간암 진단을 받고 현대의학에서 지칭한 대로 고분고분 치료를 받아 왔기에 현재 85세의 나이에도 아주 정정하게 지낸다고 한다.

이때 고분고분하다는 말은 암에 굴복하거나 암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암을 인정하고 그를 친구로 대하고 잘 달래서 돌려보내라." 라는 것이다. 암은 마치 수렁과 같아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암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해서 Dr. 한은 "죽음을 신의 저주가 아닌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여생을 재정리해서 후회 없이 이승을 떠나야 한다." 고 했다. 다른 말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챙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말마따나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마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간암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흔한 7대 암에 대해서도 서술했고 '증거에 의한 의학' '대체 의학' '민간요법' 등에 대해서도 'Dos와 Don'ts'를 저자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알기 쉽게 풀어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암에 걸린 분은 물론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번역을 맡은 안 동문은 원래 꼼꼼한 분이라 용어 한 자·단어 한 개마다 신경 썼고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에게 appeal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에서처럼 best seller가 되어서 우리 동창회에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 책은 지금 amazon.com과 barnesandnoble.com에서 \$23.95에 판매되고 있으며 곧 이 두 company를 통하여 e-book으로 \$9.99에 판매될 것이다. 참고로 안병일 동문의 e-mail 주소는 williamahn@yahoo.com이다. - 이원택 (71, 남가주)

관통해 서사를 이루는 거대한 작품이다. 이 소설이 첫 출간 이후 사라지지 않고 출판되어 독자의 손에 들렸을 때에 우리 문학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었는지 상상하면, 흘러간 지난 50년의 세월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온전히 새로운 그릇에 담겨 21세기 독자 곁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자 한다.

<꽃과 제물>이 비록 논픽션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4·19 혁명을 주도한 학생 세대의 손으로 쓰인 '증언문학'으로서 가치는 막중해 보인다. 혁명과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 내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젊은이들의 넋을 어루만지는 위무의 구실 역시 톡톡하다 하겠다.

1940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를 졸업한 작가 정영현은 안병환(65)동문의 부인이며 동문이자 시인 정두현(61)의 동생, 표지그림은 수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동생 정희현(72) 동문의 작품이다.

### 36th Convention Scientific Session

MARCH 23, 2019 (SATURDAY)

- 7:50-8:00am Welcome address  
*President*
- 8:00-8:10am Opening remarks.  
*Scientific Committee Chair*
- 8:10-10:10am **Understanding Healthcare Quality and Value**  
*Moderator: Lee, Seon-Kyu*
- 8:10-8:40am What are healthcare value and quality?  
*Lee, Seon-Kyu (89)*
- 8:40-9:10am How to maintain Quality care (Quality Control) in the US and Why is important?  
*Oh-Park, Moo-Yeon(89)*
- 9:10-9:40am Achieving and maintaining Healthcare value and quality in Korea  
*Kim, Dong Wan (94)*
- 9:40-10:10am In the era of value and quality; what's your value? (Physician Contract 101: How to negotiate Like a Pro)  
*Lee, Ki Hyeong (89)*
- 10:10-10:20am Coffee Break
- 10:20-12:30pm **Healthcare Disparity and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eform**  
*Moderator: Nam, Lucy*
- 10:20-10:50am Keynote: Healthcare disparities: definition,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Kang, Yong-Ho (92)*
- 10:50-11:20am Challenges in Uncovering and Addressing Health Disparities among Asian Americans  
*Nam, Myong Ho(Lucy) (81)*
- 11:20-11:50am Future Directions and Potential Solutions for US Healthcare Disparity  
*Ahn, Ah Reum (Julia) (08)*
- 11:50-12:20pm Chronic hepatitis B and liver cancer in Asian Americans  
*So, Samuel*
- 12:20-12:30pm Panel Discussion
- 12:30-2:10pm **Lunch Session: Report from the Special Task Force for the Healthcare Disparity**  
*Moderator: Nam, Lucy*
- 12:30-1:00pm Epidemiology of Stomach Cancer Disparity in Korean Americans.  
*Lee, Eun Jung (97)*
- 1:00-1:30pm Gastric cancer screening and early treatment  
*Hwang, Joo Ha*
- 1:30-2:00pm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utcomes for gastric cancer  
*Park, Haeseung(06)*
- 2:00-2:10pm Q & A
- 2:10-2:20pm Coffee Break
- 2:20-3:40pm **Pursuing Quality, Maintaining Value and Promoting Innovation**  
*Moderator: Seo, Gwy Suk*
- 2:20-2:40pm Maintaining value and innovation in Emergency Radiology  
*Seo, Gwy Suk (84)*
- 2:40-3:10pm Facilitating and Pursuing Healthcare Innovation in Korea  
*Chung, Hyun Hoon(97)*
- 3:10-3:40pm Healthcare Innovation and its importance  
*Song, Kyung Min (09)*
- 3:40-4:30pm **Group Consciousnes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of Korean**  
*Moderator: Rhim, Jong S*
- 3:40-3:50pm Introduction  
*Rhim, Jong S. (57)*
- 4:00-4:30pm Group Consciousnes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of Korea  
*Oh, In-Whan(63)*

Marth 24, 2019 (Sunday)

- 8:00-9:00am **Podium Presentation I**  
*Moderator: Park, Jong Chul (99)*
- 8:00-8:30am Mechanisms Generating Fusion Oncogenesis in Lung Adenocarcinomas  
*Lee, June-Koo(08)*
- 8:30-9:00am Evaluation of TDP-43 proteinopathy and hippocampal sclerosis in relation to APOE e4 haplotype status: a community-based cohort study.  
*Yang, Hyun-Sik (09)*
- 9:00-10:00am **Podium Presentation II**  
*Moderator: Baek, William Sewan (99)*
- 9:30-10:00am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nd Recent Advances in Donor Hepatectomy  
*Kwon, Choon Ghyuck David (95)*
- 11:00-12:00pm **Podium Presentation III**  
*Moderator: Lee, Do-Eun (99)*
- 11:00-11:30am Changing Landscape in the Treatment of Myasthenia Gravis  
*Lee, Ikjae (08)*
- 11:30-12:00pm Immunologic Characterization of Intermediate MSI scores in Stomach Cancer,  
*Shin, Sang Ha (18)*
- 12:00-12:30pm Lunch
- 12:30-1:30pm **Panel Discussion**  
**Career Challenges to become a US physician**  
*Moderator: Park, Gye Young*  
Panelists:Ahn, Se Jin (08) / Lee, IkJe (08) / Cho, Sang Wook (15) Chung, Shul Won (14)

### 36회 학술대회 Green Project (GP) session 참관기

서귀숙(84, 대뉴욕)



학술대회 둘째 날 일정은 Green Project Session이었다. 대학이나 private sector에서 새로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동문들의 연구 및 다른 활동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발표

자들에게는 피드백을 받는 장이 되고 참가자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수년째 계속되어 오는 세션이다. 이번에는 신상하(18졸업), 양현석(09), 이준구(08), 이익재(08) 동문들이 현재 의학계의 hot topic인 기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청중들 모두가 genomics와 molecular biology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첨단 연구들이 lung cancer, Alzheimer disease, Myasthenia Gravis, Stomach cancer 처럼 의학계가 풀고자 노력했던 질병의 수수께끼에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임상적인 우리의 practice와 가장 학문적인 기초연구가 만나는 현장을 모두가 경험하였고, 각각의 다른 시각에서 오는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학술대회를 통털어 시간이 모자랄만큼 질문이 있었던 것은 이 세션이 유일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백시완(99) 동문은 Musicalization of neurological disorders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라는 우리의 출발점을 돌아 보게 하였고, 권춘혁(95) 동문은 미국에서는 드문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에 대하여 발표를 하여, 의료는 그 지역과 개인의 특성

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음과 동시에, 차가운 과학으로만 보이는 의료가 문화,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발표자 중 두 사람은 서울의대 동창회가 벌이는 outreach effort의 수혜자였음을 공개하여 동창회의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즐겁게 쳐다보았다.

질의와 comment를 통하여 이 학술대회와 동창회의 의미를 역설하고 젊은 동문들을 격려한 정균희 회장의 리더십, 현재의 동창회의 활동, 특히 GP activity가 동창회와 동문 개인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웅변한 남명호 동문의 vision,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선규 scientific chair의 팍팍함이 활발한 토론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 났다.

시작할 때 청중이 손뼉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쓸쓸함이 느껴졌었는데 이 세션이 끝날 때에는 그 넓은 회의장이 꽉 찬 것처럼 느껴졌다. 역시 양이 아니고 질이었다.

사진: 송경민 동문의 강의



김성환 학술대회장, 홍정용 총동창회장, 감사패를 받는 차민영 동문



인사를 하는 정균희 회장, 공로패를 받는 오무연 동문과 남명호 동문



만찬 시작전 행사에서 교가를 제창하는 동문들

### 36th Scientific Session Faculty

- |                              |  |                           |  |
|------------------------------|--|---------------------------|--|
| Ahn, Ah Reum (08)            | Former Faculty member at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of SNUH                                     | Lee, Seon-Kyu (89)        | Pediatric Neurology at Advent Health for Children and Advent Health, Orlando, FL   |
| Ahn, Se Jin (08)             | Senior resident, Radiology, Montefiore Medical Center, Bronx, NY   | Nam, Myong Ho (81) (Lucy) | Professor, Radiology and Neurosurgery,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Montefiore Medical Ctr., Bronx, NY   |
| Baek, Sewan (99) William     | Parkside Medical Group, Adjunct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science, UC Riverside | Oh, In-Whan (64)          | Medical Director, Inova Laboratories & Inova Fairfax Schoo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Inova Health   |
| Cho, Sang Wook (15)          | Resident   | Oh, Moo-Yeon (89)         | President and CEO, Leadership and Group IQ Institute   |
| Chung, Chul Won (14)         | Resident   | Park, Gye Young (90)      |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Medical Officer, Burke Rehabilitation Hospital.  |
| Chung, Hyun Hoon (97)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NUCM  | Park, Haeseung (06)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 Hwang, Joo Ha                | Director of Interventional Endoscopy, Stanford University  | Park, Jong Chul (99)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Washington University at St. Louis   |
| Kang, Yong Ho (92)           | 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NUCM   | Rhim, Jong S (57)         | Assistant in Medicine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structor in Medicine in Harvard Medical School  |
| Kim, Dong Wan (94)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NUCM  | Seo, Gwy Suk (84)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Surgery,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USUHS),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rostate Disease Research, National Institute Bethesda, MD |
| Kwon, Choon Hyuck (95) David | Director of Laparoscopic Liver Surgery at Cleveland Clinic, Cleveland, Ohio  | Shin, Snag Ha (18)        | Professor of Radiology at Donald and Barbara Zucker School of Medicine at Hofstra/Northwell  |
| Lee, Do Eun (99)             | Endocrinologist, De-Eun Lee Inc. CA  | So, Samuel                | Research Associate, Northwestern University, Chicago, IL the Lui Hac Minh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the Asian Liver Center  |
| Lee, Eun Jung (97)           | Associate Professor of Research,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SC  | Song, Kyung Min (09)      | Co-founder and Chief Operating Officer of Clsfd Inc.   |
| Lee, IkJae (08)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logy,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 Yang, Hyun-Sik (09)       | Instructor in Neurology at Harvard Medical School, and Associate Neurologist at Brigham and Women's Hospital   |
| Lee, June-Ku (08)            | Post-Doc Fellow,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cs, Harvard Medical School  |                           |  |
| Lee, Ki Hyeong (89)          | Medical Director of Comprehensive Epilepsy Center and  |                           |  |

### 제 36차 학술대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

(사진 제공: 나두섭 동문)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호에는 많은 동문들의 별세 소식을 신게 되어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문희(58) 동문 별세: 펜실베니아주 Indiana에서 비뇨기과를 개업하고 계시던 박 동문께서 지난 4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루었으며 Memorial Service가 6월경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영철(59) 동문 별세: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면서 시계탑에 영시를 보내주시던 신 동문께서 지난 3월 17일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박인주(61) 동문 별세: 산부인과 개업의로 활동하시던 박 동문께서 요양차 가 있던 텍사스 파넬 데에서 편안히 영면하셨습니다. 슬하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 오원환(61) 동문 별세
- 이종현(61) 동문 별세
- 박성민(64) 동문 별세

오태희(64) 동문 별세: 지난 2월 5일 새벽 1시1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cremation을 하게되어 viewing이나 장례식 없이 추후에 Memorial Service를 거행한다고 합니다. 오 동문은 Yale Medical School 정교수로 일해 왔었습니다.

임대목(64) 동문 별세: 뉴욕주 Schenectady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공헌하셨던 임 동문께서 2월 27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김현(66) 동문 별세: 암으로 투병중이시던 김 동문께서 지난 1월 31일 별세 하셨습니다. 김 동문은 의과대학 병리학 연구기금으로 \$500,000을 기부하여 매년 연구기금으로 \$50,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인주 형 생각

1955년에 내가 서울대학 문리대 의예과에 입학 하였지만 대학이라기보다 9시부터 5시까지 학급이 계속되는 시간표가 딱 짜여 있어 고등학교의 연장 같았다. 나라의 곳곳에서 모인 반 친구들이 지닌 사투리도 신기했지만 반에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대학엘 들어오게 된 나이가 많은 동급생들이 있었다. 마치 아이들이 어른들과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들과는 존칭으로 대화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 씨로 존칭을 쓰기도 하고 미스터라고 아주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내게 강 선생이라는 존칭으로 접근 하였다. 그는 키도 나보다 크고 얼굴은 희며 미남이었고 근시가 심했는지 금테 안경도 멋이 있었고 지성적으로 보였다. 이 사람이 박인주 동기였다. 그가 처음 내게 접근 한 것은 시험 준비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보면서 공부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왜 우리가 서로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여 그 제안을 한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것도 다방에서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솔깃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다방은 차 마시고 음악 감상하고 사람 만나는 곳으로 여겼지만 시험 준비를 거거서 한다는 것은 신기했다. 대학가에 있는 다방들은 다 그런 것이었다. 찻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니 더욱 좋았다. 첫 시험을 마친 후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서울 한 복판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한상을 잘 받았다. 하숙생활 하는 시골뜨기에게는 여간 호화로운 사치가 아니었다. 거기서 벌써 나는 박인주의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이 나오는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도 박인주 동기가 나의 형의 친구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196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해군에서 4년 복무를 하고 미국으로 와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마친 후 볼티모어에 초청을 받아 일하게 되었다. 여기서 박인주를 다시 만났다. 그는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공수정을 연구하여 펠로우쉽을 그쳤다.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은 연구가가 되었다. 그 소문이 한국에까지 미쳐 서울대학병원에 발탁되어 가게 되었다. 보통 영광이 아니었다고 여겼다. 나는 부러웠다. 얼마 되지 않아 놀랍게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놀랐다. 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한국에서 돌아왔다고 하며 나와 근처에 사는 고의걸 동기와 저녁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한국기행은 슬픈 얘기였다. 그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인공수정 특수 외래진료를 담당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외래 환자를 떠 맡겼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 수십 명을 진찰 하는 생산 공장의 조립라인처럼 말이다. 그의 자존심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듣는 나도 분이 치올랐다. 그 후에 박인주형에게 여러 가지 함께 고민 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 나를 만나자고 했고 나와 의견을 나누었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나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을 것이라며 의논해 오기도 했다. 나에게 는 커다란 부담이었지만 또 차츰 당연하게 여기게끔 되었다. 나보다 성숙한 형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나와 의논한다는 것은 나를 더 겸손하게 했다. 이럴 때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는 나를 의논 대상으로 대하였다.

그의 취미는 고상하였다. 고전 예술품 수집은 그 한 가지였다. 하루는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소장품을 보여주었다. 대단한 수집이었다. 재미있고 참으로 괴이한 습관은 박형이 때때로 수산시장엘 새벽에 갔었다는 것이다. 나는 때를 놓쳐 물어보지 못했다.

몇 년 전 부터는 만날 때마다 그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자주 만나지도 못했다. 점점 수척해 가는 것이 보였다. 일 년여전에 박 형이 이 지방의 동기를 모두를 비싼 식당으로 초대하였다. 모두가 얼떨떨했다. 참다못해 내가 물었다. 이것이 웬 뜻밖의 호사냐고 하니 그는 "강 선생 등단 축하하려는 것이요."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속 깊게 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수필로 두 문학적 잡지에 등단하였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 그가 별로 친교를 하거나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으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속이 깊었다. 나는 그 은혜를 백분지 일도 갚지 못했다.

딸네 집 근처로 간병을 위해 옮긴 후 약 6 개월 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송별예배에서 나에게 송별사를 할 기회까지 주었다. 나는 그가 절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마디 했다. 그것이 본받을 인격임은 불문가지다. 하나 그것이 그에게 득이었는지 실이었던지는 나도 판단하기 힘들었다. 박 형은 아니 박인주 선생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게 정을 주었다. 나에게 송별 예배에서 추도를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어찌된 것인가. 나는 내 형들을 다 잃었다.

마지막 박인주 형까지 보내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거친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 강창욱(61)

### 친우 박성민을 떠나보내면서



성민을 처음 만난 것은 1958년 서울대학 의예과 때 얻었다. 전에 듣지도 못했던 부산에 있는 작은 학교인 해동고교에서 혼자 서울대학에 들어온 시골(?)뜨기 이었는데 또렷또렷한 인상에 호감이 가서 친우가 되었다. 우리 그룹과 음악감상 등을 자주 같이했고 1963년 Cholera 방역팀으로 인천에서 두 주일 같이 지나면서 매일 저녁 맥주를 마시며 청춘을 즐기던 때가 거의 6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성민은 시카고에서 Intern, Pediatric Resident을 하고 Miami와 San Diego에서 Fellowship 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Pulmonary Subspecialty를 끝내고 다시 샌디아고로 돌아와 UCSD에서 Staff로 있다가 개업을 시작했다. 열심히 바쁘게 일하다 40년 후에 은퇴를 하였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있는 Harbor City Kaiser에서 Cardiologist로 있었고 그때만 해도 traffic이 별로 없어서 서로 자주 왕래를 하였었다. 또 우리들은 나이가 같은 두 아이들이 있어 우리 두 가정은 많은 주말을 모두 같이 재미있게 보내곤 하였다.

원래 매사에 치밀하고 정확한 성격이라 개업, 가정 모두 계획대로 잘 이루었다. 두 아들은 Stanford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원만히 하던 중 3년 전 불행이도 첫아들 Richard가 휴가로 간 하와이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부모에게 말할 수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친우가 가졌던 Parkinson 병을 빠르게 악화 시켰으리라 본다.

항상 개업에 바빠서 샌디아고 집 근처에 있는 US Open을 했던 유명한 Torrey Pine Golf Club에서 그때 Lady Club 간부로 있던 부인 덕으로 우리 부부가 자주 가서 골프를 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시간이 없어 부인 하고만 골프 치고 그와는 저녁만 같이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

성민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빠진 것 없이 하였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부부들이 젊었을 때 테니스를 같이 치곤하였는데 시작 전후에 항상 탈수를 방지하려고 정확한 양의 소금과 물을 마시었다. 그리고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였었다. 피부 관리도 빠짐없이 정확히 하여 운동시에 아직도 얼굴이 주름 없는 동안이었고 흰머리도 별로 없었다. 바쁜 중에도 교회에서 장로 일도 맡아보았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몇 년 전부터 back pain으로 시작해서 Parkinson 병으로 진전 되었고 최근에 갑자기 악화 되면서 자신이 Hospice Care 받기를 자진하였다. 사후에 몸은 Scientific Research Organization program에 의해 처리한 후 장례식 대신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Celebration of Life로 친우들을 초청하여 자기를 생각하면서 정다운 시간을 가져 달라는 유언을 남기었다. 역시 박성민 답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Irony 한 것은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했지만 많은 동기보다도 먼저 타계로 갔으니 역시 운명은 재전이요 인생지사는 새옹지마인 것 같다.

잘 가거라 친우야, 우리 얼마 후 다시 만나자. - 이흥표(64) 드림

### 김현 형을 추모하며



2019년 1월 31일 형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비보에 이게 꿈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형의 건강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황망하게 가셨습니다. 내적인 고통이야 오죽 했을까만 겉으로 별 내색 없이 인내 해준 모습을 기억합니다. 약물 치료하는 동안 손에 감각이 없어서 자동차 문에 잘려진 손가락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의연하게 남가주 동기 "계모임" 등 많은 활동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했던 형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명멸하는 60년간 쌓여진 우정 어린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학력, 인격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 기둥이었던 형의 자리가 이렇게 큰 것을 재삼 느끼고 있습니다. 형은 의학 분야에서, 특히 Lymphoma의 세계적인 권위자였고 미국 의대 textbook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출중한 연구 논문을 수없이 발표했습니다. 대장암 말기에, 날로 심해가는 고통을 무릅쓰고 모교를 위하여, 고액 기부자로서 의대 병리학 교실을 직접 방문한 선행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공예 조예가 깊어 전문가 이상의 세련된 작품들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여행가로 고차원의 여행을 평생 동안 지속 했습니다.

이제 형은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Newport Beach를 떠났습니다. 부디 이승의 무거운 짐을 훨훨 털시고 편안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 2/2/19 김용재(66)

Dear Yong Jae: September 2018  
 After three years of conventional chemotherapy such as Folfox and Folfiri, I had to try different modalities. They kept me alive for another year but unfortunately, all three new modalities failed. At this point, I am not sure what is available but still trying to get into listeria based cancer vaccine program at UCLA. Although I am not certain whether I can qualify for that trial. For a time being I am back to Folfox but with significant side effect.

I know that you called me on Saturday but I had my phone off since I did not feel well. Thank you for your call. - Hun.

김현 동문의 자녀가 쓴 조사  
 April 9, 1942 - January 31, 2019  
 We are sad to announce the passing of Dr. Hun Kim after a long and courageous battle against cancer.

Our dad was a proud father, grandfather and physician who served the community for 50 years. We are grateful for your years of love and support. Per our dad's wishes, there will be a small gathering of family members only, and he requested no flowers or gifts. Instead, your thoughts and prayers are appreciated. His strength, resilience and love will be missed by us all.

Please do pass this along to other friends and colleagues as we do not have everyone's contact information. Thank you.

With love, - Roy and Gina



### 석학碩學 조승렬趙昇烈 (1943-2019)

## 동문을 생각하며

겨울해가 저문 미국의 이 시간에 태평양 저편 서울에서는 조승렬 교수의 영결식이 있었다. 바로 3개월 전에 68년에 졸업한 우리 제22회 동기들이 연건동 모교 강당에서 모여서 졸업 50주년 행사를 했다. 그 행사에서 조교수는 준비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때 그를 만난 후, 남산타워에 올라가 한강변도 내려다보고 일본 여행도 같이 했었다. 이를전 갑자기 알려진 그의 부음을 듣고 많은 미주 동문들이 너무도 놀랐고 슬퍼한다. 설명이 필요 없이 조교수는 우리나라 의학계에 커다란 별이었다. 그는 졸업 후 기초 의학 중에서도 서병설 선생님이 주임교수였던 기생충학을 전공하여 세계적인 학자로서 많은 의과대학교의 요직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종신회원으로 있었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합립원 학술회장으로서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아시다시피 조교수는 평생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려가 깊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우정에 나도 늘 감사했다. 2년전 남가주의 LA에서 있었던 미주 의대 34차 학술대회에 초빙 감사로 참석하여 발표한 “뇌고충증(腦腦蟲症)” 즉 Human Brain Sparganosis에 대한 그의 강의를 그때 학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할 것이다. 그 강의 내용은 Oxford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올라와 있다. 담력을 기른다면서 뱀이나 개구리의 근육을 생으로 먹는 훈련을 받았던 공수부대원들이나 건강비법이라고 그런 음식을 날로 먹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내충이나 뇌에 일어난 기생충 감염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전통적인 학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그는 의학발달에 기여한 의학자로서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연결 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도 갖춘 참 사람이었다.

일식 음식점에서 스시나 사시미를 먹어도 안전할까요? 하는 질문에 늘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우면서 “잘 교육을 받은 셰프가 만든 스시는 거의 대부분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했다. “그것을 보아요! 조승렬 교수가 민물고기가 아니고 잘 요리된 바다 생선이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사모님들이 좋아하던 생각이 난다. 청량리 예과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그는 땀을 흘리며 농구를 열심히 했고 한때는 안경이 부서지던 일도 있었다. 본과에 올라와서는 단연 그는 최우수학생이었다. 학생 때부터 그가 공부하는 자세는 보통 많은 우리가 하던

암기식이 아니라 질병과 세포 병리과정을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색다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가 후일에 훌륭한 연구의 실적을 남겼을 것이다. 학생시절 열악한 시설이었던 의대 본관 4층에 있었던 학생도서관에서 그는 열심히 학생 도서위원으로 봉사했다. 점심시간이면 둘러앉아서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먹던 생각도 난다. 맛있는 계란말이를 나에게 권하던 친절도 기억한다.

버지니아에서 7년 전에 돌아간 서관우 동문의 유가족들의 안부도 늘 묻고 하던 그 우정과 친절함, 후배들한테서 온 전화를 받을 때에도 늘 존댓말로 답하던 그의 겸손한 성품을 나는 존경한다. 김명석 교수가 몸이 불편할 때 임운명 교수와 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돕고 나서 나에게 입교수를 높게 칭송하던 그의 말을 기억한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피우던 담배를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국은 끊었는데 조교수만은 평생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다. 흔히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도 글을 쓸 때만은 담배를 피워야 잘 쓰인다고 웃으면서 담배를 평생 맛있게 피웠다. 혹시 그 담배를 안 피웠다면 그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질병이 안생겼을까? 또한 금연을 했다면 항암치료 중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도 않고 치료 후 잘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답하여 주시면 좋겠다.

존경하는 조승렬 교수님! 당신이 우리나라 의학계에 남긴 큰 발자취, 수많은 논문들과 업적들이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보여준 학자로서의 진실 되고 참된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의학이나 과학 부분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고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을 걱정하던 당신의 말도 우리는 기억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당신의 생을 정리하신 석학 조승렬 교수여! 천 광년 떨어진 별나라 어디에 다음 세상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다시 또 그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히...

글: 눈이 내리는 수도 워싱턴에서 서운석  
사진: 2018년 10월 10일 우리 22회 동기 50주년 행사 후 남산 타워에서 가운데가 조승렬 교수, 그의 오른편이 김경인, 왼편이 서운석.

## 상식의 한계

허선행 (64, 대뉴욕)

누가 말했든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고...  
나같이 우물 안 개구리식의 상식은 아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니 자신이 한심하다고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 는 것을 우리는 무식하다고 한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더 무식하다고 해야 하나!!!  
전문분야만 잘 안다고 해서 유식하다고 한다 면 어딘지 유식의 해석이 또한 달갑지 않다.  
사실 요사이 JEOPARDY를 경청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고 안타까워 지면서 알아야 할 많은 것을 이다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한탄해 본다.  
어려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그저 암기하는 교육이어서, 예를 들어 보 납 과 초 노 주 빨(지금 종종 써먹고 있지만) 이라든지 이조 왕조 임금님들의 이름과 년대, 태 정 태 세 문 단 세... 등등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늘 외우고 다녔으나 사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외워 본 적이 없었으니 심지어는 한국 역사에도 낙제 생애 가까웠다.  
그런데 이조시대 이전 고려 삼국 시대로 올라 가면 그때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당황스럽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상식의 기본이고 유식으로 가는 돌다리 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도 JEOPARDY Program 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분야에서 오는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답하는 참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자리에 서서 몇 개나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 의아해 본다.  
미국의 역사는 짧아도 (한국 역사에 비해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유럽과 세계의 역사적 사실, 인물, 예술, 문학, 과학, 지명... 다시 말해서 백과사전에 실린 모든 내용을 골고루 알아야 이 프로그램에 한번 등장해 볼 수 있을까?  
ABC에서 방송하는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에서도 각종 문제를 제시하는데 (multiple choice) 상금도 크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상식 이상의 깊이가 있으며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며 세계의 동식물, 음식, 정치인 이야기도 가끔 나왔었다. 그리고 최근엔 북한의 지도자와 Trump가 회담한 장소 이름 맞추는 문제도 나왔었다.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 유식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 우선 역사적 사실과 풍조를 많이 알고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옹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상식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을 않을까?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상식이 아닌것 같은 상식을 추가한다면 Tibet의 거승 Dalai Lama도 미국 CIA에 포섭되어 일했었다는 믿지 못할 상식(?)이 있고 옛 독일의 Hitler도 Austria 학술원 정회원 가입이 두 번이나 거절되었다고.

## In May

Young C. Shin(59, Maryland)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in the forest the cuckoos were calling  
in the air the birds were chirping  
in the pond frogs were croaking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lilac flowers were timidly smiling  
dogwood twigs were out-stretching  
and red azaleas were broadly blooming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capricious April was behind us  
green was everywhere around us  
and bright sunbeam lavished upon us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full bloom is coming back  
everything gets its life back  
but my father never comes back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when my father was taken away  
to the world that seemed so far away  
but now I feel it is not too far away

## 봄날은 간다

신영철 선배님께 드리는 詩

김 병 오(69)

벗꽃 지고 봄비 오던 날  
Turf Valley\* 회관에서 동창회 모임이 열렸다.

겨울을 나신 노선배님 환하게 웃으신다.  
어인 緣故일까  
오래 간직하던 물건들 장마당처럼 차려 놓으시고  
아무나 아무거나 가져 가라고 하신다.  
Mahler CD와 김수영의 시집을 염치없이 집으며?  
노선배의 無我와 만났다.

詩文으로 한 생애 황홀하게 엮어 놓으시고  
안으로 짙이고 여물은 분  
세상 보지 못한 경계에 깊숙히 닿아 계시다.

少女 시즈코를 추억하시고?  
하이네 詩를 닳게 읊조리던 이승의 한 때 어제였던가

세월 그 사이 또 지나고  
인사 차 둘러보니 보드랍게 俗氣 빠지신 모습  
이미 자리를 떠나셨다.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사시더니

외롭고 거친 변방의 겨울은 가고  
진달래꽃 구름에서 손 흔들며 헤어졌던  
꿈 속의 봄 눈앞에 두시고

무심하여라 그리워라?  
창밖에 봄날은 서둘러 서둘러 떠나고 있었다.

아 가는 사람 이와 같은가

\* Maryland 서울의대동창회 모임 장소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 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 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 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건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김시한 (58) 선배님

1. 공군 군의관에서 제대하고 1960년 말에 NYC St. Clare's Hospital에 Intern 하려고 왔습니다. 수중에 \$100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아내의 의사촌 오빠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민병덕 18대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전 회장을 통하여 배우자를 알게 되고 약혼기간 6개월, 결혼 후 2주간 신혼여행 후 뉴욕에 왔습니다.

일년 후 아내와 재회했을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3. 선친이 외과의사였고 선친의 의업을 계승하려고 외과의사가 됐습니다..

4. Thoracic surgery resident로 있을 때 심장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하자 곧 병원에서 일약 유명해지고 과장한테서 "Good Job!"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 후 attending으로 일할 때까지 합해서 다섯 명의 심장외상환자를 봉합수술로 생명을 살렸으니 좋은 인술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5. 가정의 화목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FLEX 시험, 두 개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6. 수업시간에 제일 뒷줄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안하고 Time지나 읽으면서 빈들거렸던 일, 그래서 재시험이 빈번했습니다.

7. 다시 태어나면 의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8.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나 자신이 처신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You tube에서 노완우 목사가 하루 30분간 건강운동법을 설교한 것을 보았는데 건강에는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여야만 된다는 요지이고, 누워서 등 굴리기, 척추 펴기 운동, 허리를 펴고 걷는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Mindfulness with breathing-A manual for serious beginners-by Buddadasa Bikkhu, translated by Santikaro Bhikku(미국명 Robert Larson) 책을 읽었는데 16 steps의 좌선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조목 좌선실천을 거치는데 약 5분 걸립니다. 좌선을 하면 Chromosome의 Telomere가 길어져 세포의 노화를 방지한다니까, 척추운동 후 좌선을 약 5분간 취침 전에 합니다.

10. 시계탑은 삼 개월마다 기다려지는 발행물이며 Cover to Cover 빠뜨리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 특별히 더 조언할 것이 없습니다.

니다.

6. 예과시절부터 계속 medical chorus에서 합창을 즐겼습니다. 한해는 합창지휘자로 이동일씨 라고 보스톤음대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하고 귀국하신분을 초대하여 연습을 하던 중 연습이 제대로 안된다고 탓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 의과대학생들 맞아? 왜들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려면 다 그만 두고 말지." 하면서. 이것이 바로 발표회 하루 전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기인 soloist 하삼배 군이 "당신이 뭔데 의대를 들먹거리면서 욕질이요?" 하니 이동일씨가 화가 나서, "나 이거 못해. 맘대로 하라구." 하면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시느라 선배님들이 고생하신 이런 대형 사고일뻔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7. 다른 분야의 의사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외과 계통의 의사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8. 제 첫 딸은 변호사가 되어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아들인데 비뇨기과 의사, 셋째는 딸인데 소아과 의사, 넷째는 아들인데 Radiology, musculoskeletal MRI 전공의. 나는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존중했고 내가 어느 분야를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9. 일을 할 때는 매일 push-up을 100번 정도씩 하고 병원에서 계단은 늘 걸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3~4회씩 9홀 골프를 걸어서 치고 주 2회는 Fitness club에 가서 elliptical 45분, 무게 20 파운드로 근육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골프치는 분들이 우리를 포함해 다섯 커플,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10. 저는 현 시계탑 format에 불만이 없습니다. 시계탑 발행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이원호 (59) 선배님

1. 의과대학 3학년 부터인가 미국에 가서 Advance된 의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66년 8월에 가방 하나, 단 돈 50불을 지니고 오대호 중에 하나인 Lake Erie에 있는 Cleveland, Ohio에 도착했습니다.

2. 맑고 고운 여인을 대학병원에서 Resident할 때 만나 5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두 딸 Yuri와 Susie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3. 특별히 의사가 된 계기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4. 세포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Cytopathology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Dr. James Reagan 교수님을 Case Institute에서 만나서 Cancer 본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Cancer 치료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 배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14살 때에 한국으로 와서 모든 것을 적응하던 것이 어려웠습니다.

6. 학창시절인지 레지던트시절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임낙중 동창과 그의 약혼녀 박경숙양, 그리고 나와 내 약혼녀 김영지양, 친구 유인경 동창과 친구 정복순양과 함께 백운대에 등산을 갔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7. 다시 태어난다면 Einstein 박사의 상대성원리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Physicist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8. 내 자신이 Role Model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Role Model이었던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다행이도 잘 자라주어서 고맙지요.

9. 취미는 독서와 골프입니다. 매일 9홀을 걸어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10. 항상 재미있게 시계탑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창건 (61) 선배님

1. 1968년 해군 군의관 생활을 끝내고 6월 말에 Augusta, Georgia에 있는 Medical College of Georgia에 도착하여 4년간 training을 마치고 Section of Hematology & Onc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에서 Instructor와 VA Hospital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1974년 그곳을 떠나서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 Dr. Bill Stout, Cardiologist의 권유로 그들이 practice 하던 Anniston Medical Clinic에 Hematology Oncology practice를 시작하여 Anniston Alabama에서 나의 반생인 43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7명이 내과 의사였고 후에 12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올 때 \$200씩 부부가 합쳐서 \$400 이었고 Tokyo-Haneda 공항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여 미국에 도착하니 \$200이 남았었지요.

2. 1967년 10월 29일 부산에서 나를 구해준 논문(?)여자와 결혼하여 아직 큰 딸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training 중 Medical College of Georgia에서 딸을 얻어 신기한 행복감을 얻었고 2년 후 아들을 같은 곳에서 얻었지요, 딸은 딸만 둘, 아들은 딸 하나, 손자 운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고 손자를 얻어 대를 이었다는 영광,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데도 말입니다.

3. 형이 6.25 사변중 간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소모 장교 소위로 소대장을 하다가 북쪽 포로가 되어 그들의 세뇌 공작을 받던 중 탈출했습니다. 생사(生死)를 경험을 한 그 형의 강력한 영향과 권유로 의사가 되었지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탈출할 때 군의관(軍醫官)이 제일

안전하고 다른 직종보다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정직(正直)과 인성(人性)을 갖춘 의사, 그래서 나는 돈을 못 벌었지요(?).

4. 내과의사로서 Hematologic Oncology에 전념했고 주로 group practice에서 Hematology Oncology를 했지요. 1960년대에는 Oncology는 Hematology에서 떨어져 나오던 시기였지요(우리가 training을 받을 때).

5. a)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해를 풀길 없었던 안타까움.

b) Training을 끝나고 instructor로 있었을 때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한 France계 Peru인이 staff로 들어와 노골적인 건방과 동양인을 멸시의 눈으로 보는 모멸감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그래서 practice를 하기로 결심하고 떠났지요. 그가 나를 경쟁자로 여긴 탓이었지요.

(내가 졌나?) \*관용과 정직!!!

6. a) 4.19 반정부 시위 데모 때 임상복 차림으로 청와대 앞까지 우리 반 학생들이 갔을 때 우리는 부상자 후송차 왔다고 우리 반의 대표가 나가서 말하니 경무관이 흰 옷으로 선동한다면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잠시 나와서 있었을 때 고교 학생들과 대학생 집단이 밀려왔고 잠시 후 총성이 나더니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종로에서 생긴 부상자를 택시에 싣고(군용 들것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넘겨주었고 그 때 여자 고등학생들이 헌혈을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b) 본과 일학년 때 생화학 교수 이진순 선생님의 즉석(即席)시험이 연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노트쪽에 답안을 적었고 곧 이어서 5-7명씩 답안지 순서로 학생을 불러서 잘 잘못을 따져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때 나는 끝에 불러서 교수실에 있었더니 너는 왜 여기 <다음면에 계속>

## 황현상(61) 선배님

1. 1965년 해군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6월 26일 NW 항공편으로 미네소타 주 St. Paul에 있는 St. Luke 병원에 Intern 자리를 얻어 오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50를 가지고 떠났었는데 도착했을 때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2. 진해 해군병원 피부 비뇨기과에 근무 중 제 4년 선배 되시는 과장 양태한씨의 소개로 1963년 8월에 만나서 교제를 하다 이듬해 3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선배님과는 동서지간이 되었고요.

은퇴한 후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생활에 대한 stress가 없고 이곳 Tampa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이런 저런 작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없이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 나는 이북에서 중학교 3년을 마치고 1.4 후퇴 때 평양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제 부친과 같이 내려온 피난민입니다. 제주에서 1년 4개월 지나고 부산으로 나와 용산고등학교에 보결생으로 2년 3개월만에 졸업을 하면서 사범대학을 지망하려고 준비 중에 제 부친의 권유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4. 마취과를 선택해서 1966년부터 2003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 자기가 세운 목표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친구)과의 좋은 관계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Visa 연장이 안 되고 출국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때였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 김나현 (14) 동문

선배님들 겨우내 안녕하셨는지요? 긴 겨울을 털고 초록빛 얼굴을 내미는 새싹과 봄꽃을 담은 최근 졸업생 김나현 동문(14)을 소개합니다. 인성과 실력 골고루 갖춘 김나현 동문은 졸업 후 동기생인 남편과 함께 바로 미동부로 건너와서 USMLE 시험, 레지던시 매치, 출산 등 많은 과정을 해내고 올해 7월부터 뉴욕에서 재활의학과 레지던시를 시작합니다. 아마 동문회에서 만나본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신과 수련 중인 남편 그리고 예쁜 두돌배기 아이와 알뜰살뜰 어떤 신혼살림을 살고 있는지, 옛 추억도 떠올리시면서 새내기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 1.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요?

저는 본과를 다니며 특별히 미국행을 생각해 본 계기가 없었습니다. 재학 중에 미국 병원에서 실습(clerkship)이나 참관(observership)도 하나도 해둔 것이 없었고요. 과 동기생인 남편(나중호, 14졸, 정신과)과 본과 4학년때부터 연애를 시작하여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도 했고, 졸업하면 바로 미국에 가서 수련 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 미국 생활이나 미국에서 수련받는 것의 장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어스레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 의사가 되고 싶(KMLE)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인턴 시험이 아니라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 2. Residency match 준비 과정은 어떠한가요?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부분, 혹은 자신 있었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심지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residency match에 뛰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수월

〈전면에서 계속〉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내 답안지가 큰 것에 덮여 못 보신 것을 알려드리니 미안하셨던지 대략 살피고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덕을 본 셈이지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별로 점수가 없었던 (0점 가까운)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옛날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될 것입니까. 의료 수가의 변화로 academic field의 학교생활 아닌 private practitioner는 매력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라면 engineer가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8. 특별한 것은 없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라

했던 과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 후 USMLE Step 1, 2, CS를 연달아 치르고, 미국 병원에서의 observership을 구하고, 실제 실습을 하는 과정 모두 많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먼저 match 준비를 시작한 남편이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어주었는데도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match가 된다면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었어요. 제가 지원할 당시 남편은 이미 Minnesota에서 인턴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원하고자하는 재활의학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주 통틀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미네소타와 남편이 program transfer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뉴욕 등 북동부 지역만 지원했더니, 지원한 프로그램 숫자가 총 서른군데도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첫 해에 match가 되지 않았고, Supplemental Offer and Acceptance Program (SOAP)을 통해서 뉴욕 쪽 내과 프로그램의 preliminary year 자리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내과 인턴을 하면서 재활의학 residency match에 다시 지원하는 재수 끝에 원하던 재활의학과 (Burke Rehabilitation Hospital, NY)에 합격하였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길을 앞서 가셨던 동문 선배님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3. 미국에서의 재활의학과 수련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수련을 받지 않았고, 미국 병원 시스템에는 이제 첫 발을 디딘 새내기라 양쪽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병원의 업무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팀웍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미국 병원 수련을 장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올 가을부터 레지던시 수련을 시작할 될 Burke 재활병원은 While Plains, NY에 위치한 150병상 규모의 재활 전문 병원으로, 1915년에 개원하여 백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재활 병원이라고 알고 있고, 인터뷰 때에도 전반적으로 무척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재활 노하우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의학을 통해 환자와 함께 저도 의사로서도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4. 미국에 온 후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곳 생활이나 병원문화에 잘 맞는지요?

한국에서보다 행동이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 보니, 스스로를 더 의식하게 되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편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매우 늦게 자는 극단적인 올빼미족이었다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미국에 와서는 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요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딸은 늦게 Child Psychiatrist가 되었고 아들은 Law School을 나와서 Government Job으로 USAID의 Assistant General Counsel(US Ag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결혼문제도 자기들의 의사대로 하였고 다 한인 후세대입니다.

9. 건강을 위하여 걷는 것과 골프입니다. 소식(少食)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태함은 건강을 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10. 편집회 여러분이 다 잘 하고 있으니 특별한 조언이나 청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아침형 인간인 종달새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완전히 아이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와서라기보다는 엄마가 되어서 생긴 변화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연차가 달라도 친구처럼 지내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런 수평적인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레지던시를 시작하면 인턴때와는 또 다르게 이곳 병원 문화가 어떻게 다가올 지 궁금합니다.

#### 5. 아이가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 한참 예쁘졌어요. 부부가 동시에 레지던시 수련을 받으면서 육아는 어떻게 했는지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장단점이 있다면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네 몇 달 전에 막 두 돌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말문이 트여서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몽글몽글함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terrible two 라는 나이에 맞는 행동으로 분노 지수가 한없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요, 하하. 둘 다 뉴욕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저는 인턴을, 남편은 2년차 레지던트 생활을 했던 작년은 무척 힘든 한 해였어요. 내과 인턴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도 뉴욕으로 프로그램을 옮기고 당직 풀이 찾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daycare에 정기적으로 맡기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번갈아가며 미국에 오셔서 도와주신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 년을 쉬고 있어서 전업주부로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아이와 무엇을 해야하나 막막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을 함께 하지 못할 생각에 벌써부터 아쉽네요.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보니, 사람들이 아이들을 참 따뜻하게 대하고, 아이들을 늘 배려해주는 문화가 내면에 깔려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환영받고, 부모들도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육아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자율성”입니다. 아이가 자율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두 가지 옵션을 주어서 결정하게 하려고 해요. 하면 안되는 일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이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느낌엔 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수긍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하하.

#### 6. 뉴욕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이면서도, 어쩌면 알려진 이미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특징을 가진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살아보니 뉴욕은 어떤 곳으로 다가오는지요?

지금은 뉴욕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인턴 생활을 했던 병원 근처, 뉴욕의 중심부와는 조금 떨어진 Flushing, Queens에서 지냈습니다. 맨하탄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대뉴욕’에 속하는 지역들은 저마다 너무나 다른 문화와 개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뉴욕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도 ‘뉴욕은 이러 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 본 지역에 따라 각기 색다른 경험이 가득 할테니까요. Flushing에는 맛있는 한국/중국 음식점들도 많고, 한국 마트도 많아서 편

리하고, 마치 작은 한국과 같아요. H-mart가 저희 집 5분 거리에 네 군데가 있었으니 말 다했죠? 남편과의 첫 여행지가 뉴욕이었는데, 이 곳에 살게 되어 좋습니다. 인턴이 끝난 후 쉬는 기간 동안 남편과 아이와 함께 맨하탄, 브루클린을 비롯한 뉴욕의 이곳저곳을 다녀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7.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최근에 졸업한 동문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대-간호대 연합 가톨릭 봉사 동아리인 CaSA (Catholic Students' Association)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해서 총무 직까지 맡았었습니다. 매해 여름 방학마다 진료를 도와 주셨던 CaSA 선배님들, 의대-간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까지 약 백명 정도가 총복 과산으로 진료봉사를 다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주일 정도의 진료봉사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졌던 MT (membership training)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 언니들의 추천으로 배구반에도 들어가서 열심히 했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운동하는 운동 동아리가 많지 않았는데, 배구반은 그런 점에서 참 재미있었던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본과 4학년 때에는 제가 졸업여행 대표를 맡아 여행 기획부터 진행까지 맡았었습니다. 일본 동경으로 3박 4일 다녀오는 일정이었었는데, 총 백 명 정도 참여하는 등 참석률도 높았어요. 인솔하며 어찌나 목소리를 많이 썼던지 목이 쉬어서 일주일 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동기들로부터 피드백이 좋았어서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 8. 한국 방송은 즐겨 보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는지요? 자주 방문하는지요?

하하하, 네! 한국 방송을 편히 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있어 손쉽게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챙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나 미드(미국 드라마)를 찾아봤었는데, 정작 미국에 오니 한국 방송을 보고 있네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는 물론 시차라는 장벽이 있긴 하지만, 휴대폰 메신저(kakao talk)와 영상통화(facetime)로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손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요즘은 거의 매일이다 싶게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에 오고 나서 총 2번 갔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가을에 조금 길게 리아를 데리고 다녀왔어요. 친구 부부가 한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우는 통에 내내 서서 안고 달렸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 비행기가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갔다” 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잠도 잘 자고 순하게 있어주어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속이 좋지 않았는지 구토를 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주변 승객 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심지어 배를 따뜻하게 해주라며 핫팩까지 챙겨주셔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장거리 비행은... 좀 더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하.

#### 9.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처음에 와서 막연하게 시험준비할 때, 그리고 첫 해에 매치가 잘 되지 〈다음면에 계속〉

# God's Will (주님의 의도)

안창현 (61, 플로리다)



미국에 와서 산 것이 2018년으로 꼭 50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반세기를 미국에서 보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에서 11.5년, 남한에서 20.5년 둘을 합하면 32년.

그 합한 세월보다 훨씬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낸 것이다. 한국을 떠나서 다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자녀들 교육에 아내와 같이 힘을 다했던 일들은 다시 회고하고 반추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제 은퇴한 인생이지만 아직도 최근 의학발전이 무엇인지 열심히 터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 시카고에 있었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Holy Name Cathedral에 세 번째 참석한 일요일, 2018년 어머니날 오전 11시 예배 Mass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여기에 기술한다. Church의 좌석에 자리 잡고 주위를 보니 좀 떨어져서 필자의 왼편에 우리 나이 정도의 노인이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얼마를 지나 Mass 도중에 이 노인이 코트를 벗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교회순서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한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Heart Attack or Stroke"이 온 듯하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옆을 보니 그 코트를 벗었던 노인이 deep blue color로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collapse 되어 있었다. 그 부인이 도움을 부탁하기에 바로 뒤에 있던 교인에게 "Call 911"을 부탁하고 그 collapse된 노인을 의자에 놓고 맥박(pulse)을 집어보니 Pulse가 없었다. 필자가 Manual 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을 15-20회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의 딸 같은 여인이 맥박이 돌아왔다고 하기에 CPR을 중단하고 환자의 왼편 Carotid Artery를 만져보니 강한 맥박이 돌아왔다. 의자에 환자를 안전하게 잘 놓고 관찰하니 혼자서 숨을 쉬는 것도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앰블런스에서 Paramedic이 들것(stretcher)을 끌고 들어와서 환자를 옮기니 환자가 거의 깨어나 두 손으로 베개를 찾는 모습과 그들이 환자를 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인생의 환희감을 느꼈다.

물론 병원에서 근무 중에 Cardiac Lab를 담당하면서 "Crash Cart"를 열고 환자의 응급상황을 급히 처리하던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Code Blue"가 울리면 열심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고 따라서 김원규 교장

<전면에서 계속> 않았을 때였어요. 다행히 가장 힘들 때 선배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무연(89) 선배님께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세 식구가 주말에 놀러 다닐 때예요.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거창한 소망이나 계획은 없고, 단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수련을 마치는 게 가장 큰 행복일 것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 Ventricular Fibrillation이 온 흑인 환자 Mr. Nelson의 생명을 깨끗이 구제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 흑인 veteran은 그 후 병원에 올 때마다 필자를 찾아와 생명을 되찾아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또 한 번 필자의 환자가 심장마비(Cardiac Arrest)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회진 중, 늦게야 알았고 다른 Cardiologist가 CPR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기도에 Intubation을 하고 나니 그 의사가 "Flat Line" 다시 말해서 Asystole(=Terminal Agonal Rhythm)이니 CPR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내가 리더십을 넘겨받고 모든 인원들에게 "떠나지 말고 내 지도에 따라 달라!" 라고 부탁하고 Escalating dose of epinephrine thru the Endotracheal tube와 Continuous Dopamine drop을 유지하면서 monitor를 보니 얼마 안되어 Flat Line이 Rapid Pulse로 Convert 되었다. 다시 말해서 Rapid Supraventricular Tachycardia로 맥박이 180/min with palpable pulse가 있어서 nurse에게 "Slow down Dopamine drip and check BP!" 하니 BP가 systolic 150 mmHg, Heart rate도 slow 되어 130/min이 되었다. 그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 되어서 나와 담당 간호사와 respiratory therapist가 환자를 ICU로 옮겼다. 그 환자가 나중에 호전되어 Tertiary Care, VAMC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0년 간 필자는 미국에서 3명의 미국 시민의 생명을 구했으며 이 사실을 Chicago Golden Club Meeting에서 2018년 7월 5일 발표했다. 특히 Cardiac Arrest가 올 때 처음 2-3분내의 CPR response가 생명을 3배나 더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사실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 2018년 5월 30일 USA Today 신문에 게재했다.

최근에 TTM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다시 말해서 저온도 치료(Hypothermic Care) 즉 체온 섭씨 32-36도로 적어도 24시간동안 유지하면 심장마비(Cardiac Arrest)에서 올 수 있는 뇌손상(Brain Damage)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meeting 때 강조했다. 이렇게 과거를 상기하는 과정이 우연은 아니다.

필자가 1973년 처음 Training을 마치고 시카고의 Catholic Hospital에 근무할 때, 반수 이상의 환자는 필자의 노력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가난한 의사였다. 그러나 그 공헌의 결과가 지난 2018년 어머니날 그 성공적인 구급치료(Cardiac Resuscitation Success at Cathedral)를 할 수 있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다고 말할 한다면 그 사실을 구태여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마지막 인생을 다시 시카고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또한 마라톤(Marathon)을 만 82세 나이로 완주한 것도 2018년 10월 시카고에서 었었다.

같아요.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은 학생 때 clerkship이나 observership을 통해 미국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미리 경험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셨다면, 혹은 정하기 힘들시다면,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선배님들께 도움 받은 만큼 나중에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박은경 편집위원)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 전기 자동차



나두섭 (73, 남가주)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한 전기차는 매연도 없고 주유소에 갈 필요도 없다. 충전은 집에서 한다. 완전히 충전하는 데는 차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시간 정도 걸린다. 이것도 240볼트 레벨 2를 사용했을 경우이다. 110볼트 레벨 1을 사용할 경우에는 3-4일 걸리니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다. 외부 충전소에서 충전할 경우 빠른 직류 충전을 쓰면 80% 충전하는데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 느린 교류 충전은 5시간 정도 걸리므로 기다리면서 충전하기에는 곤란하다. 80%에서 100%로 충전하는 데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 문제는 직류로 충전하는 곳이 가솔린 주유소처럼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늘어난 나겠지만... 거의 모든 대규모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미 만들었거나 앞으로 만들 계획이므로 전기차도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아직은 충전소의 자리가 대부분 비워 있으므로 가는데로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먼저 온 차가 충전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전기차 충전은 일반 차의 가솔린 주유처럼 5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잘 계산하지 않으면 장거리 여행에는 시간상으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기차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을 여행하려면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기차를 가정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비용은 가솔린 값에 비해 반 정도이고 전기 값이 저렴한 한밤중에 충전하면 더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곳에 주거하여 가정 충전을 설치할 수 없어서 외부 충전 시설만 이용한다면 충전 비용은 가솔린 값보다 별로 저렴하지 않다. 전기차는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으므로 정기 점검도 간단하다고 한다. 그러나 강력한 전기 모터를 가진 전기차는 같은 소양을 가진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리베이트와 텍스 크레딧을 감안해도 아직은 다소 비싸다. 주행 거리가 짧은 전기차들은 직장에 왕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다니려면 외부에서 충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산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234마일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 소모를 자제하면서 가는 경우이고 실제로는 200마일 정도 간다. 물론 이코모드로 주행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으면서 가면 250마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운전의 즐거움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20%가 다음의 차는 전기차를 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를 사서 써 보니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었다. 첫째 240볼트 전기차 가정 충전기는 필수품이다. 만약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 같은 곳에 거주하여서 외부의 충전소에만 의존한다면 연료비용 절감의 유리한 점은 많이 없어진다. 둘째 왕복 200마일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장거리를 운전하려면 외부에서의 충전 시간을 감안해서 시간 배려를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에서의 충전은 빠른 직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타당하다. 전기 충전소를 나타내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교류 충전소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예 빠르고 빠른 직류 충전소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충전소는 기계만 설치되어 있고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어볼 데도 없다. 차 종류에 따라 충전할 때 연결하는 소켓 모양이 다르고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다.

전기차를 사려면 빠른 직류 충전소가 주유소처럼 많지 않은 것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솔린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매연가스가 없으니 공기를 맑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전기차를 산 후에 그 특성을 미처 이해 못한 것이 많았고 가솔린차와 비교해서 운영상으로 다른 것이 많아서 후회도 하였다. 전기차를 산 다음날 좀 먼 거리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충전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트래픽은 많아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운전하던 기억은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초조했던 순간과 비교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체로 적응도 되었고 전기차의 특성에 대한 준비도 되었다. 앞으로는 전기차의 장점에 점점 매료되리라 생각된다.

여러분도 다음의 차로는 전기차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담 골목

손님이 식당에서 냉면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그 날이 흑시 그의 생일이라고 물었다. 손님이 "그렇다"고 하니, 직원이 말하기를 "생일에는 냉면을 먹어야 긴 세월을 산다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냉면은 국수가 길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노용면)

내가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강조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와 "서로 참으십시오." 이다. (노용면)

바닷가 부근에서 살고 있는 칠순 노인이 가벼운 심장병 증세가 있었다. 담당 의사로 부터 체중을 줄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노인은 바닷가 해수욕장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다. 하루는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자네는 운동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여자 몸매나 쳐다보고 있으니 운동이 되는 감?" 그러자 노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모르는 소리 말아, 요놈의 구경을 하려고 매일 십리 길을 걸어오는 거야." (이덕승)

영어를 즐겨 쓰고 있는 어느 LA의 미장원 아가씨가 있었다. 한국에서 관광차 LA에 온 한 아줌마가 손님으로 왔다.

미용사: 아메리칸 트위스트 파마, 트네상스 뿌리 파마, 실크터치 파마, 부메랑 파마, 그리고 스트레이트 파마 중 뭘로 해 드릴까요?

아줌마: 음...그냥 뷰어주세요. (이덕승)

# 기이서 벼자 2020

이희백 (61, 워싱턴)



휴전선 근방 화진포에 가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돌집이 있다. 근처에 이승만 별장과 이기붕 별장도 있어 일종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나도 2011년 졸업

50주년 기념 동기동창회를 기해 그곳을 가본 적이 있다. 이곳이 한국전 전에는 38 이북이었던 때라 김일성이 별장으로 쓴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그런데 이 집이 원래는 화진포 城(Whajinpo Castle)이라 불렀고 임자는 Dr. Sherwood and Marian Hall 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그 내력을 알아보면 이렇다.

Dr. Sherwood Hall의 아버지는 Dr. William James Hall, 어머니는 Dr. Rosetta Sherwood Hall로서 그의 어머니 Rosetta는 1890년 서울에 도착, 그의 기나긴 여성교육, 특히 여성의학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Dr. William Sherwood Hall은 그 이듬해 1891년에 도착, 1892년에 그들은 결혼하였다. 이는 서양인이 한국에서 결혼한 첫 번째 기록이 되었다. 이 부부는 함께 평양에서 어려운 선교사업을 의술을 통해 펼쳤다. 그들의 의료사업은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인해 중단되고 서울로 철수했다가 William은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평양으로 다시 갔다가 과로와 typhus fever에 걸려 사망했다. 1893년에 출생한 그들의 아들 셔우드는 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대학과 의학을 캐나다에서 마치고 의사가 되어 그의 출생지인 한국에 그의 의사 아내인 Marian과 같이 1926년에 와서 자기 부모의 의료선교사업을 이었다. 그는 주로 결핵퇴치운동을 벌였는데 해주에 결핵요양소(sanatorium)를 세우고 한국 최초로 Christmas Seal을 발행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씰이 성공하는 것을 본 그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데도 한국에서도 성공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씰을 먼저 시작한 곳은 덴마크였다. 즉 덴마크도 결핵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Verdi의 오페라 La traviata의 여주인공 Violetta가 폐결핵을 앓고 있어 기침을 하며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물론 우리는 더 심했다. 전세계 결핵율이 인구 20명당 1명인데 비해 우리는 5명 중 한 명이 결핵환자였다. Dr. Sherwood Hall이 결핵퇴치를 그의 평생사업으로 삼게 된 계기는 자랄 때 친하게 지냈고 셔우드의 어머니 Rosetta가 미국에 데려가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돌아온 Esther Pak(김점동)이 10년 후 결핵으로 사망한 것을 본 것이었다. 돌아온 셔우드는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설립했다. 이를 설립하는 데는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금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한가지 문제만 예로 들면 전염병환자를 자기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자기동네 근처에 형무소나 마약환자 치료소를 반대하는 이곳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또 토지소유자를 압박하여 못 팔게 하려는 주민들, 과도하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이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설립한 요양소는 많은 결핵환자를 죽음에서 구해냈다. 그러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차별적인 미국 이민정책에 불만이 높아지고 이 여파로 선교사도 스파이로 모는 등 갖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선교사들에게 철수할 것을 권했다. 닥터 셔우드도 1940년 귀국하기로 결정 자산을 정리하고 이별인사를 하는 등 돌아갈 준비를 하던 도중에 선교본부에서 귀국하는 대신 인도에 가서 선교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자 전생애를 선교사업에 바치기로 결심한 그인지라 주저없이 수락한 그는 일본에서 미국행 선박대신 인도행 선박을 타고 인도로 향했다. 인도에 간 그는 결핵퇴치운동을 1963년까지 계속했다. 그가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23년을 더 한국에서 일했을 것이다. 일제를 원망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Dr. Sherwood와 Marian은 원산 해안 휴양지에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더니 1937년 일본은 원산해변(명사십리)을 “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일본은 철거한 이들에게 옮길 새로운 지역을 설정했다. 이곳은 한편은 해변을 끼고 다른 편은 호수를 바라보는 곳이었다. 일본인들은 이 호수를 “Kashinho”라고 부르나 우리는 이곳을 화진포(花津浦)라고 불렀는데 셔우드는 이곳이 스위스의 Lake Lausanne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들은 원산 명사십리에서 즐기던 파도소리를 못 듣게 된 게 아쉬웠으나 자기들에게 배당된 호수로 향한 언덕의 경치로 즐거움을 대신했다. 언덕을 오르내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경치가 좋은 언덕이 나자 그들은 얼른 이를 택했다. 우리들은 젊어서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군사당국이 물어준 돈으로 이사한 셔우드는 뜬어온 재료를 다시 조립하여 거처를 마련했다. 원산 해변은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 나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18-1919년 러시아 혁명에 많은 백계 러시아 망명인이 한국에도 와 선교사들도 이들과 사귄 기회가 있었다. 또한 Hitler를 피해온 독일인들도 많았다. 이들 중 하나가 Herr Weber다. 그는 젊은 건축가로서 그의 기술을 발휘할 겸 자기들을 받아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기회를 갖고 싶어 했다. 셔우드가 해주에 거주할 때 그를 만났는데 우리들의 계획(화진포 집)을 말하자 그는 당장 자기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했다. 물론 문제는 자금이라고 말했더니 그는 재료만 대주고 자기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 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극히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나는 황급히 Herr Weber와 같이 화진포를 방문하고 그에게 장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믿을 만하고 잘 아는 건축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때는 건축기가 지나간 때라 최소한도만 지급하면 되고 또 농한기라 일꾼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선금도 필요 없이 시작하고 완성 후에만 지불하면 되게 되어 있었다. 극히 사소한 건설이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성, Castle 이 아니고 작은집, cottage 였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성될 때 까지 올 필요도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완성되기 전에 와 볼 작정이었는데 너무 바빠 와 보지 못 했다. 결국 완성된 다음에 와본 나는 놀라 자빠졌다. 내가 생각한 것은 오두막집 (wee cottage)인데 이건 정말 城(castle)이 아닌가. 내가 놀란 것은 표현할 길이 없다. 시공자와 Herr Weber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기에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Rhine 강에서나 볼수있는 城(castle), 바로 그것이 아닌가. 여기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땅인데, 바로 탑에서 별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 경치. 탑 의자에 앉아

창문에 비치는 호수를 보자니 마치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떠 있다는 착각을 가져오지 않는다.

“귀부인에게서 특별한 대언회를 열 경우에 쓸 방은 이곳이요.” 불룩한 bay window가 있는 방에 나를 인도하면서 선언하는 Herr Weber는 자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벽화로에 붙인 불빛에 샹데리아가 화려한 무늬를 짓자 Herr Weber는 넋을 잃고 감상에 젖어 있었다. 청부업자와 Herr Weber가 완벽한 시공을 보여주는 동안 내 머리는 도대체 이를 어떻게 지불할단 말인가로 꼭 차 있었다. 나는 자세한 문서계약을 맺지 않은 나를 책망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한 나를 원망했다.



Dr. Sherwood and Marian

그들이 훌륭한 집, 아니 城을 지은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Herr Weber가 헌신적인 노력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한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Rhine 강의 城을 이 화진포에 지은 것을 내 호주머니가 담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망설이던 끝에 겨우 모기소리로 “얼마요?” 하고 물었다. 목에 침이 꿀꺽 넘어갔다. 그들의 요구가 공사규모에 비해 너무나 약소함에 또 한번 놀랐다. 그럼에도 내 지불 능력은 그들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다. 결국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 간신히 나온 말은 “어떻게든지 지불할 테니 좀 시간을 주소.” 하는 것이었다. Herr Weber의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내 귀를 스치자마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금이 딸린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는 이런 사태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허리띠를 졸임으로서 그리고 친지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전혀 문제가 다르다. 허리띠를 졸이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다. 그리고 개인 자부심을 버리고, 물론 버릴 수도 없지만, 설사 체면을 버리고 내 친구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한들 내 城을 마련해주기 위해 달려올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내가 자초한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란 한 치도 보이지 않고 마음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자 흔히 위로해주는 말, “하느님은 신비롭게 역사하신다.”가 내 귀에 들려왔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 저지를 행위에 신을 인용함이 적절치 않음을 잘 아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내 어릴 적 평양시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내 친구였던 Susan Roe 이다. Susan Roe는 내 어머니가 세운 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분이다. 그의 동생 Lucy는 미국 금광회사(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의 간부와 결혼 했다. 평양에 가서 Susan에게 내 고민을 털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불쑥 났다. 그는 항상 돈 문제에 대해 좋은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상기되었다. 내가 평양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따듯이 맞아주면서 “너무나 반갑소. 그러지 않아도 전보를 쳐려든 참이었소. 자, 당신이 여기 있을 때 모든 사무를 마무리 지읍시다.”

“예? 사무라니 무슨 사무...?!” 놀란 내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은 그는 “이곳 평양에 오래 비어있는 당신 소유 빈터 있지 않소.” “갑자기 그 터를 사자는 사람이 나타났소.” 그는 이어서 “내 동생 Lucy의 이야기에 의하면 광산회사 간부가 말하기를 회사

분배점을 차릴 터를 물색 중인데 당신이 소유한 그 터가 장소로 보나 크기로 보나 가장 적당하다는 거요. 적당한 가격만 요구한다면 당장 현금으로 살 의사가 있다는 것이요.” 나는 현지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나 내가 한인 청부업자와 Herr Weber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는지라 불쑥 그 액수를 내밀었다. Susan은 그 금액이라면 받아드릴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 특히 장소가 그들이 원하는 장소인지라 미국회사가 금액 가지고 승감이 할 건 아닐꺼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시에 Susan과 그의 동생 Lucy에게 가슴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며 필요한 자금을 갖고 돌아온 나는 순식간에 내 城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다. 지나간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내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보험금을 나에게 남겼다. 그 돈으로 나는 벽돌집을 지었다. 이 집은 두 선교사 가족이 살 수 있게 만들었고 일부 투자는 나의 대학학비를 보태주었다. 또한 소액은 그 당시에는 땅을 헐값으로 매입 했었다. 이것은 내 후손의 학비에 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투자였다. 나중에 했던 계획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행복한 몇 계절을 이 城에서 지냈다. 혹독한 전쟁은 우리의 城과 그 내용물을 몰수했다. 우리 城으로 남은 것이란 사진과 Marian이 그린 유채화(oil painting)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행복한 기억은 지워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남의 도움 없이 다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위에서 기술한 이야기는 Sherwood Hall의 저서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에서 전재했음을 밝혀둔다.

우리가 소위 “해방”을 맞은 것은 1945년인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된 해가 1948년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 1950년이니 김일성이 화진포에 있는 城에 와서 자고 간 것은 해방 후 다음날부터 었다고 쳐도 5년이 못 되고 기껏해야 3년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그 城을 김일성 별장이라 부르는 게 타당하지 나는 묻고 싶다. 지금의 국립묘지 “Arlington National Cemetery”는 원래 소유자가 Robert Lee였는데 1861-1865년 남북전쟁(Civil War) 중 연방정부(북부)가 작전지로 쓰다가 전사자의 묘지로 쓰게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연방정부가 무단점거(squatter) 한 셈이다. 물론 전쟁 중에 Robert Lee가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형편이 안됐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후손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듣기에는 이들 (plaintiff)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연방정부는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를 삼으로써 해결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의 Arlington National Cemetery가 Robert Lee Cemetery라고 불러야 될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일제말기 마지막 9대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新行)가 이 성 城을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아베 노부유키 별장으로 불러야 될 것인가? 김일성 별장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셔우드 홀 성(城)이라고 (다음면에 계속)

# 실패한 신

정유석 (64, 북가주)

여기서 신이란 공산주의를 말한다.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미국과 서유럽의 작가 6명이 후에 공산주의 실상에 실망하여 노선에서 탈퇴하고 만 경험담을 엮어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 1950)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이들은 특히 20년대와 30년대에 물질주의가 팽만했던 미국식 생활방식이나 소멸되어가는 민주주의를 보고 더 나은 평화롭고 인민 위주의 세상을 꿈꾸어 공산주의 이론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심적인 많은 지식인들은 재난과 불안으로 혼돈해진 세상에 공산주의만이 평화와 정의, 질서를 가져올 대안이라고 믿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파시즘이나 나치 독일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에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소련을 방문했다가 빈곤과 심한 정치적 탄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낙심한 사람도 있다. 이 작가들은 모두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아서 코슬러(Arthur Koestler, 1905-1983)는 헝가리 출신 영국작가다. '정오의 암흑'(Darkness at Noon)이란 소설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1931년 독일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1930년대에 벌어진 대 숙청을 보고 스탈린주의에 환멸을 느껴 1938년에 탈당을 한 후 반공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1951)는 '좁은 문', '배신자', '전원 교향곡', '교향청의 지하도', '지상의 양식' 등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프랑스 작가다. 1947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1936년 소련 작가동맹의 초청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방문했지만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에 실망하여 귀국하는 즉시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1908-1960)는 미시시피 주 출신의 흑인 작가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1920년대 미국 내의 극심한 흑백갈등을 다룬 소설을 썼다. '톰 아저씨의 아이들'(Uncle Tom's Children, 1936)과 '흑인의 아들'(Native Son 1940)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흑인의 아들'은 20세기 미국 대학에서 필독서로 꼽혔다. 그는 1933년 미국 공산당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소련에서 벌어지는 숙청을 보고 실망하여 1942년 공산당에서 탈당했다.

이그나지오 실로네(Ignazio Silone, 1900-1978)는 '술과 포도주'(Bread and Wine, 1937)를 지은 이탈리아 작가다. 그는 1921년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후에 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1930년대에 스탈린과 국제 공

<전면에서 계속> 불러야 할 것이다. 일제가 강제 징발한 이 城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 일제가 물수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 후손에게서 사서 셔우드 홀 기념관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이들의 공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63년에 캐나다로 돌아간 Dr. Sherwood와 Marian Hall은 1984년 91세와 88세의 나이에 한국결핵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991년 98세의 생애를 마친 Dr. Sherwood는 그의 출생지인 한국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장, 양화진 가족묘지에 묻혀있다. 두 세대에 걸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이들의 인간애에 감격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2019/2/9

산주의 운동(Comintern)에 반대하여 당에서 탈당하고 말았다.

루이스 피셔(Louis Fischer, 1896-1970)는 유대계 미국 언론인이다. 1920년대에 '석유 제국주의' 같은 책을 냈는데 이런 낡은 이론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1932년 우크라이나를 여행했다가 거기서 참혹한 기근 상황을 목격했다. 1945년에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스티븐 스펜더(Stephen Spender, 1909-1995)는 영국 시인이다.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17대 계관시인으로 추대되었다. 1936년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1939년에 체결된 몰로토프-리벤트로프(독소 평화조약)에 실망하여 공산당을 등졌다. 당시 이 조약으로 인해 영국의 시인 W.H. 오든이나 소설가 크리스토퍼 어셔우드도 맹렬하게 반대했다.

당시 유럽 지식계는 좌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공산주의를 대하면 따돌림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사르트르는 전후까지 공산주의자임을 공언했고 피카소도 공산당원임을 숨기지 않았다. 자기 조국 스페인이 나치 공군에 의해 공습을 당한 모습을 그린 역작 '게루니카'에서는 무차별한 폭격에 의해 인마가 울부짖는 그림을 생생하게 그렸다. 그러나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한국에서는 황해도 신천 양민들 앞에 우주인 같은 복장을 한 미군들이 나타난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렸지만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훨씬 떨어진다. (참고로 신천 양민 학살이란 한국전쟁 시 미군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된 황해도 신천군 양민학살을 말하는데 사실은 미군이 개입한 적이 없다. 남북이 서로 밀고 밀리는 사이 좌익인 공산당과 우익인 반공 기독교인 사이에서 벌어진 살육사건이다. 황석영 씨의 소설 '손님'에 실체가 기록되어 있다. 아직도 북한은 거대한 기념관까지 지어놓고 조작된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간 그런 풍토에서 공산주의를 고발한 글을 발표한 이들 작가는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또 나중에 공산주의가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붕괴하고만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은 용감할 뿐만 아니라 옳은 판단을 한 작가들이었다.

## 먼길 꿈길

이수인(63) 남가주

언덕길 걸어가는  
내 발자국은 금방  
과거가 됐네  
오늘은 아주 천천히 걸어본다  
주춤주춤  
더 오래  
오늘에 머물려고  
모르는 사이 지나간  
또 못 만날  
오늘들  
어떻게 잡아 보려고  
이젠 가만히  
멈춰서  
서 있어도  
과거가 되네  
너무  
황망하게 걸어온 먼길 꿈길  
내 발자국은  
모두 훗날  
과거가 됐네



## 후원단체에서 동창회로 보내온 감사편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Charity Committee에서 수년째 후원하고 있는 CoCo(뉴욕장애아동 코코 서비스 센터)에서 온 감사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SNUCMAA 회장님과 회원들께 드립니다.

불황에도 저희 단체를 잊지 않고 지난 몇 년간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장애아동 코코 서비스센터는 2000년도 11월 1일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학부모 7명이 모여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는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단체 장애우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략) 주중에는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매주 토요일에는 종일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1:1로 지도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등 여러가지의 레크레이션으로 사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해 동안 후원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은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곳곳이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우 가족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코코 대표 전선덕 드림



## 65학년 대 66학년의 골프시합과 크루즈 이야기

김혜자(Mrs. 황철 66)



오랜 옛 친구들과 만나 반가워 손을 잡고 회포를 풀려면, 그것도 이 큰 미국에서 모으려면 오랜 준비와 수고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김용재 왕회장님과 박용길씨 부부가 많이 애쓰신 덕에 66년도 동기들이 또 모였다

2019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각처에서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로 모였다 그곳 동기들이 동부에서 오는 친구들을 한사람씩 맡아서 공항 픽업부터 그곳에 있는 동안 편의를 봐 주었다. 우리 부부는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신 박용길씨가 전화를 하셔서 너희는 호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오는거다 하며 멕시코 가는 크루즈를 빨리 예약하라고 일러주신 게 지난 여름이다.

도착하는 날 한동수씨 댁에서 동창과 부인들 39명이 모였다. 뉴포트 비치의 물 앞에 있는 저택에서 LA에서 공수해온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김순균 동문부부를 우리는 처음 뵈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과격적인 성공을 하신 분이시다.

저녁 식사 후에 점잖으신 김경세 동문께서 며칠 전에 오랜 암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김현 동문에 관해서, 또 편찮으신 분들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66년도 동기들은 모교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한 학년이란다. 김의신 김용재 김현 김순균 동문 등이 거액을 모교에 기증하셨다.

다음 날은 Strawberry Farm 골프장에서 조를 짜서 65년도 대항 골프 대회를 위한 연습 라운드를 가졌다. LA 지방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일인데 비 때문에 골프대회를 하루 앞당겨서 이틀째 되는 날 시합을 가졌다. 해마다 65년도한테 저서 이번엔 동부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었던만 결과는 참패였다. 65년도 선배들이 키도 월등히 크고 골프도 엄청 잘 치셔서 66년도 전원이 일어나서 선배들께 거수경례를 하며 승리를 인정해 드렸다. 중국집에서 김용재씨 사회로 뒤편이

를 하면서 선배님들은 저녁식사 후 댁으로 돌아가시지만 우리 66년도는 2차도 있다며 빠기셨다. 정상국씨 댁으로 모두 물려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웠다.

크루즈를 4박5일했는데 구경이 위주가 아니고 식당에 모여 앉아 끝없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 멕시코 엔시나다에 내려서는 마가리타 칵테일의 원조라는 술집을 찾아가서 김의신씨가 주문하신 마가리타를 한잔씩 마시고는 정상국씨가 밴드한테 노래를 주문하셔서 즐거운 한판을 벌렸다. 노규상씨 부부가 탱고를 국영순씨가 소프라노를 우리들은 박수치고 춤추고. 그다음엔 약국에서 얼굴 예뻐지는 크림들을 모두 샀으니 다음번 졸업 55주년때 만나면 "댁은 뉘 시유?" 하며 몰라 볼 정도로 젊어지길 기대한다.

이번에도 조의열씨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사진을 찍어 주셨다. 한동수씨도 사진작가로 데뷔하려고 열심히 찍으시는 중이다.

졸업 55주년 여행은 뉴잉글랜드 캐나다 크루즈로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번 여행에서 놀란 건 재주 있는 친구들. Mrs 박용길은 정통 일본식 꽃꽂이를 하다가 화기가 마땅치 않아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다는데 이전 화랑에서 작품이 팔리고 있고 각종 상을 받은 작품들 온 집안과 그릇들이 모두 도자기 예술품 들이다. 김진호씨는 첼로를 몇 년째 열심히 공부하신 대고.

가장 마음에 새겨진 말은 너희 부부가 건강해서 고맙다는 말. 이런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노재선씨 사회로 사랑방에 모여 각자의 근황을 얘기하며 이명희씨의 장수비결 김진호씨의 치매 조기진단이 관심사였고. 나는 정말 남편 잘 만나서 이런 멋진 의사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얘기했다.



# 어떤 인연(因緣)

박 인 영(75, 버지니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이다. 그들중 많은 이들은 흘러가는 세월 따라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버리지만 추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몇몇은 있게 마련이다. 직업상 환자와 맺는 관계가 대인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상진료들에게도 나름대로 잊혀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 지난날의 힘들었던 때나 보람을 느꼈던 때를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도 오래전에 연(緣)을 맺었던 환자였지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 가끔 추억에 잠긴다.

1984년 11월 어느날 나는 3주일 앞으로 다가온 신장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시카고에서 있을 일주일간의 Board Review Course에 참석차 집을 떠났다.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의 듣는 강행군이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될 것이어서 도착한 저녁부터나마 잠시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중차대한 때에 몸살기운이 덮쳐오며 열까지 오르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강의를 듣기는커녕 호텔에서 앓다가 집에 가게 되고 시험준비는 막판에 엉망이 되는 것 아닌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궁즉통(窮即通)이라고 마침의 사인 형님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것이 천행이었다. 형수님이 부랴부랴 끓여온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마시고나니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같았다. 제발 아침까지는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9시도 되기 전에 일찌감치 불을 끄고 누웠다.

평소 같았으면 잠이 올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에 몸살이 겹친 탓인지 어느새 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었다. 집사람과 방금 떠난 형님부부 외에 내가 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일까? 잠시 받지 말까 생각했지만 할 수 없이 어둠속을 더듬어 전화를 들었다. 졸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니 아주 먼데서 거는 전화인지 기계의 증폭음 속에 생전 처음 듣는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는 흥분함을 지나 감격하듯 목소리로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지의 내력을 빠른 속도로 늘어놓는 것이었다. 얇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 차려 이해하려 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나의 머릿속은 캄캄한 방보다 더 칠흑 같아 문자 그대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이었다.

그는 내가 오래전에 자기를 살려줬던 적이 있었다며 그동안 나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찾다가 나중에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미국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 후 미국에 올 때마다 각처의 의사들에게 수소문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뉴욕에 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형님의 의과대학동기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 연락을 받은 형님에게서 나의 속소번호를 알았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대체 생각나는 환자가 없었다. 서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중 그 사람이 자기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상태에 처했을 때 내가 살려줬다는 한 마디를 덧붙였을 때였다. 홀연히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아! 9년 전의 그 때 그 환자로서나 하는 놀라

움과 함께 감동이 가슴속에 밀려왔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나에게 이렇게까지 감사한다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쑥스러워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

1975년 어느 여름날 나는 모교병원의 내과병동에서 인턴당직을 하고 있었다. 바쁜 일과를 끝내고 자정쯤 의국의 딱딱한 벤치에 몸을 누이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나를 간호사가 깨웠다. 근무하던 병동 바로 옆에 위치한 전염병동에 갑자기 숨 가빠하는 환자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눈을 부비며 따라가 보니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보이는 중년의 남자환자가 침대에 일어나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100% 산소를 코로 공급받으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 온몸은 땀으로 덮여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아는 것은 없으면서도 겁이 없었던 나 같은 인턴을 두고 하는 말이어서 레지던트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덜컥 가슴 X-ray를 찍어보니 왼쪽 폐의 중간쯤에 어른 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기흉(氣胸)이 생겨 있었다. 아마도 폐질환으로 전반적인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정도의 작은 기흉도 견딜 수 없는 듯하였다. 흉부외과에 근무할 때 배웠던 chest tube insertion technique의 원칙을 따라 50cc 주사기를 사용해 폐에 차있는 공기를 두 차례 빼내었더니 벌써 호흡을 힘 안들이고 하는 것이었다. 상태가 호전되어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이 환자에 대해서는 다 잊은 채 다음날 환자치료에 바빠 오가고 있을 때였다. 간호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했다. 외국 문쪽으로 나가보니 한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어젯밤 환자의 부인이었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듯하여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내 가까운주머니에 무엇인가 속 집어넣고는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꺼내보니 돈봉투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정말 믿망하고 난처해서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었지만 끝끝내 돌려줄 수도 없어 어쩔쩍하게 끝내고 말았었다.

활동사진처럼 돌아가는 9년 전 그 때를 돌이키며 하고픈 말은 많았지만 나의 형편상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근황에 대해 간단히 얘기한 후 서로의 연락처를 알아 놓고 후일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대화를 끝내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천만 다행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몸이 회복돼 일주일간의 중노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감격적인 통화 덕택이었는데도 모른다. 다음 해에 동기동창회 참석차 한국에 나갔을 때 드디어 그와 10년 만의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전자제품 수출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헤어질 무렵에 그는 나를 또 한 번 몸 둘 바를 모르게 만들었는데 감사의 표시라며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이었다. 거듭거듭 사양하는 나에게 그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그날 밤 내가 가보기 전에 레지던트들이 이미 다녀갔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사를 다니는 중에 연락이 끊기게 되어 소재를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열쇠를 돌려주고 싶다. 나는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을만한 그 아무런 것도 해준 것이 없을 뿐더러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분에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은 만큼 나의 삶이 보람된 것이 됐다는 사실을 그는 모를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날 밤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신비함을 느끼게 된다. 아! 그를 다시 한번 만나 볼 수 있다면 나와 그의 귀한 인연을 맺어준 것에 대해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몇 배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포스트모더니즘이 먼지? postmodernism

아해 김 태 형(63, 조지아)

**나는 정말**  
미로의 비너스, 미켈란젤로의 데이비드가 마냥 좋은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군  
곰방대 하나, 변기 하나, 벽돌 하나도 멋진 작품이라고 하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감성, 예술관?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한데  
이젠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군  
부자는 나쁘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제, 사회구조?

**나는 나처럼**  
이성을 만나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살아 이웃 되어주는 사람들이 정다운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않다고 하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 살아가도 축하해 주는게 옳다고 하네  
이런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랑, 결혼방식?

**나는 그저**  
우리의 전통,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종교에 믿음이 가는데  
그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 하네  
다른 전통 다른 종교도 똑 같이 꺼안아야 한다고 하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 종교관?

**나는 마냥**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이 애뜻한데  
그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라 하네  
다른 피부색,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줘야 한다고 하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생, 세계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나에겐 먼 판 세상 이야기  
나는 그냥 나의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네  
구제 불능의 고리 타분한 구식 노인네 라고 댓글 달겠지, 아마?

### 편집회 초록

편집회가 예정대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뉴저지에 있는 Fort Lee의 동방그릴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편집위원인 허선행, 서량, 서윤석, 이선희 서귀숙, 인쇄소 황창근 사장 그리고 사무실의 Jamie

Kim 사무장이다. Iowa에 사는 박은경 편집위원은 대담시리즈 참여로 LA, California에 사는 나두섭 편집위원은 Convention 사진을 제공했다.

많은 원고에 대한 교정이 있었고 새로 참가하기 시작한 서귀숙 편집위원은 해마다 변화되는 최신의 한글 철자법과 문맥에 정확했으며 앞으로 우리 편집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계탑 문집 제6호 발행에 대해서는 시계탑 7월 호를 발간한 뒤 9월 편집회에서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양보다 질이 좋은 문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가 많은 책이라야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시계탑 편집에 수십 년간 초창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량 시인이 지난 1월 18일 밤 뜻밖에 자택이 아마도 누적으로 화재를 당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었음을 다행히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다.

지난 3개월 겨울철이라 작고하신 동문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추모사와 추모시가 많다. 특히 늘 영시를 보내주시던 Maryland에 사는 신영철(59) 시인의 타계하심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작고하시기 며칠 전에 작품을 보내시는데 늘 쓰시던 컴퓨터가 이상하게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육필로 쓰신 작품을 이번만은 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다. 그 우편물이 오고 있었던 3월 17일 갑자기 작고하신 것이다. 그분의 마지막 작품이 된 (In May) 마지막 연(聯)에 “It was this time of the year, in May/ when my father was taken away/ to the world that seemed so far away/ but now I feel it is not too far away하시며 아! 그 우편물이 오던 그 시간에 안개가 자욱한 봄비 속으로 떠나셨다.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뒤돌아보시며 굵은 손을 흔들며 떠나가셨다. 이제 선배님은 가셨지만 그분의 “시(詩 Poem)” 작품들은 인생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슬픈 초봄이었다. 다음 모임은 7월 13일 토요일이 될 것이며 원고 교정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 글: 편집인 서윤석

### 만민공동회, 입헌군주제 주장

독립문 건립을 의해서 관료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협회를 시민단체로 전환하고 대중토론회를 주관했는데 이를 만민공동회라고 했습니다. 토론회는 전국을 순환하면서 이루어졌는데, 1897년 11월 1일에 열렸던 제8회 만민공동회는 노비해방운동이 주제였습니다. 많은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참가자 중에 대표가 찬, 반 성토를 한 후 윤치호가 노비제도의 폐해와 비인간성을 성토했고, 서재필이 미국 흑인 노예제도의 참상을 설명한 후에 투표에 붙여서 다수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하여 그 권한을 내각이 갖게 하고 총추원을 의회로 바꾸자고 고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일본과 보수세력 그리고 고종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아관 파천: 친러파의 쿠데타

권력은 친일파 개화당에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개화당, 대원군과 내통하여 일국의 왕비를 시해한 후에 대원군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쓰워서 나쁜 국제 여론과 조선 국내 여론을 무마하려 했으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의 증언으로 여론은 일본측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중에 대원군은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은 개화당에게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화당이 추진한 단발령은 친일 개화당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은 부모가 준 신체를 훼손하는 불효여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백성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친러, 친미 정동파들은 이러한 반일, 반개화의 국민감정과 고종의 공포에 떠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종을 외국 공관에 모시고 자기들의 정권 탈환을 계획했습니다. 미국 공관으로 고종을 모시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춘생문 사건). 이법진과 심상훈은 러시아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관에 모시는데 성공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을미사적 전원을 살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을미사적이라 함은 민비 시해사건에 관련된 대신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친러 정적 개화파들이었습니다.

총리대신 김홍집, 탁지부대신 어윤중, 통상부대신 정병하는 피살되고 내무대신 유길준, 법무대신 장박, 군부대신 조희연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어려운 때마다 정파에 크게 관계없이 내각 수반을 맡았던 김홍집은 길거리에서 관군의 칼에 맞아 죽은 후, 군중이 그의 시체를 한 동안 끌고 다니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 1890년대 중반의 조선 사회상

매관매적이 국가의 시책이라고 할 정도로 성행했습니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궁핍한 왕실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왕도 벼슬을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들여 관직을 받으면 부임지 백성들을 착취하여 축재를 했습니다. 양반과 상민으로 갈라놓은 소위 반상제도는 조선 건국 이래 국가 구조의 근간이었습니다. 1890년대에 양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얼마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양반 인구는 약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 됩니다. 아무튼 소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양반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 인구가 30-40% 였다는 것입니다. 노비제도는 19세기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완되어 그 수가 19세기 말에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양

반들의 재산 목적이었고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나머지가 보통사람 즉 상인이었습니다. 약 60%에 달하는 일반 백성들은 극소수 양반의 착취 대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1882년에 연해주 한인 인구가 만여 명이었는데 러시아 사람은 겨우 8385명 이었다고 합니다.

##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4)

-2018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강의 초록-

온기철 (71, 남가주)

1897년에는 15년 전의 두 배가 넘는 2만5천명이 되었습니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과 연해주를 비슷한 시기에 여행하면서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저서 "코리아와 그 이웃 나라"에서 조선의 상황을 "특권계급의 착취, 가혹한 세금, 정의 부재, 쇠약해진 군주, 미신, 자원없고 음울한 더러운 나라"라고 서술하고 발전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해주에서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익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제도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스린다면 언젠가는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고종 경운궁 환궁(1897년 3월 4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러시아공사 웨베르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은 모든 정사를 그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웨베르는 많은 이권을 따내는 대신 고종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100일,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시답지않게 변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을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38선에서 분할하여 남쪽은 일본이 북쪽은 러시아가 관장할 것을 제의했으나 러시아가 거절했습니다. 운명의 38선 아이디어는 일본이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의 여론과 독립협회의 요구, 러시아의 푸대접, 왕 호위병 훈련완료 등 여건이 마련되자, 고종은 외국공관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환궁하는 고종)

대한제국 탄생과 대원군 사망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하늘에 고하고 황제에 등극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이란 말은 마한, 진한, 변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2일에 민비 시해 2년 2개월 만에 민비를 명성황후로 추존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즈음 돈으로 무려 110억이 소비됐다고 합니다.

1898년 2월 22일, 주상이 보고 싶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대원군이 사망했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이 치러진지 일년여 만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대원군의 약력은 조선의 운명사이다. 조선은 완전한 유교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오랜 역사의 반복과 다름없다. 지금의 세계대세로 보면 조선은 유교국의 최저를 유지하는데도 모자란다. 대원군은 이러한 유교국가

의 명군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종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쳐다보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철저히 이용했고 아들의 아내까지 죽인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재필 다시 미국으로

1898년 5월, 서재필은 귀국한지 2년

돌아왔습니다. 조국을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 얻은 인민의 권리를 남에게 약탈당하지 말라. 정부에 맹종하지 말고, 인민이 정부의 주인이며 정부는 인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 권리를 외국인이나 타인이 빼앗으려거든 생명을 바쳐 싸워라. 이것만이 평생 소원이다."

풍운아 서재필은 후두암과 방광암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1951년 1월 5일 향년 88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골은 화장되어 필라델피아 안장되어 있다가 갑신정변때 노비의 등에 업혀서 살아남았던 조카의 아들인 전이화여대 법정대학장 서희원 교수와 종친회에 의하여 1994년 국립묘지에 모셔졌습니다.



환영받는 서재필과 딸 유리엘과 김규식

결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있는 역사는 지나치게 일본의 침략행위를 악으로 강조하고,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취약한 국력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점을 감추어서 자존심을 살리기에 치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비는 결코 명성황후 오페라나 연속극에 나오는 지혜로운 국모가 아니었고 권력유지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나라 살림보다는 부정축재에 더 관심이 많았던, 동시대의 옆 나라 서태후에 버금가는 나쁜 왕비였습니다. 전자는 청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고 후자는 작은 청나라인 조선을 일본에게 먹히게 한 많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비의 정적 대원군은 아주 간교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를 거의 죽을 때까지 유지할 정도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끈질긴 권력에 대한 집착은 결국 민비 시해에 깊숙이 관련하게 했습니다. 철없는 젊은 개화파들은 일본에게 철저히 이용 당했습니다. 그들은 청이 조선 땅국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고 일본 세력을 빌려서 청이 조선에서 손을 떼게 했으나, 청 대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데는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본, 개화파, 대원군은 모두 민비가 결집물이었습니다. 뇌화부동할 소지가 농후했습니다.

갑신정변 후 서재필은 권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어 주어진 인생을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무능한 고종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에 대한 애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좀 더 계몽된 민족이기를 간절히 바랐고 조선이 독립국가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이 부를 때마다 돌아와서 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대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만한 인생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직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풀린 자존심은 현 세대를 교만하고 나태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국수주의적인 생각과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입헌군주제 주장은 러시아는 물론 모든 외국 세력들과 고종에게 도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공사 알렌과도 서재필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서 외국 공사들의 부당한 조선인권 취득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종 앞에서의 예의없는 행위나 조선인을 무시하는 행동 등은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양반 고위관리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독립신문의 논조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미국공사 알렌은 공사이면서 고종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고종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이권에 개입했던 사업이 많았습니다. 서재필은 알렌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재필에게 귀국하라고 여러 번 종용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미국에 있는 서재필의 장모에게 자신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서재필 부인 유리엘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전보를 받은 유리엘의 설득으로 서재필은 조선을 떠났습니다.

미국 귀환 후 서재필

그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원선 군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의대 해부학 강사와 병리학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일을 그만 두고 문방구 사업을 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조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일을 모르던 조선사람들이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금을 써서 1924년에 파산 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연했는데, 마침 유한주식회사를 만든 유일한 씨가 1925년에 서재필에게 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유한양행의 유명한 버드나무 로고는 서재필의 딸 유리엘이 도안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 병리학 전문의

1926년, 62세의 고령으로 펜실베이니아 의대에 입학하여 병리학을 더 전공했습니다. 1929년에 조선인 서재필은 최초로 병리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약 4년 동안 징병검사 의무관으로 봉사하여 미 의회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쿠데타군을 지휘하여 고종에 반역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해방과 죽음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은 이승만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던 중 김규식의 추천으로 서재필을 초청했습니다. 1947년에 서재필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정치 참여를 종용했으나 모두 거절하고 미국인 자격으로 미군정 고문관으로 일하다가 1948년 9월에 미국으로

2018년 학술대회중 젊은 동문들을 위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이었던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의 Trainer, Georgetown 대학의 Dr. Carey와 George Mason 대학의 Dr. Potter를 Seminar Committee Chair였던 남명호(81) 동문이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Leadership training program은 젊은 동문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았고, 앞으로 다양한 Theme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 Interview with Drs. Margaret Cary and Penny Potter: Reflecting the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session at the 35th SNUCAMA-NA Convention 9/27/2018

By Myong Ho (Lucy) Nam, MD (81)

Thanks Margaret and Penny for taking this interview out of your very busy schedule.

1. Polarity Management training was a new experience for me, and I enjoyed the process. Please provide brief explanation for the method and when you use it. And, what did you want to achieve at our seminar? And, how did it work this time?

a. Dr. Cary: *After talking with Dr. Hahn and you it seemed that the Polarity Pair Korean physicians often struggle with is Communitarianism and Individualism. I use this approach with individual coaching clients, dyad (usually a physician and an administrator) and with team coaching. I also deliver keynotes on this topic, and include it in the physician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I create. The goal is to see that trying to achieve one pole of a polarity pair at the expense of the other leads to frustration. Like the Tao, it's about balance and integration. My intention was to show a mind frame that would help your members in medicine and with their lives.*



b. Dr. Potter: *When we think of how the body achieves homeostasis, it gives us a clear picture of what polarity management is -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various interdependent systems. The simplest illustration is breathing in and breathing out. One would never say that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We naturally sense when it is time to breathe in and when it is time to breathe out because we are in tune with the upside and downside of each. We intuitively sense the downside of breathing in -- too much carbon dioxide in our system -- so we breathe out and experience the upside of breathing out. When we intuitively sense the downside of breathing out - not enough oxygen - so we breathe in and experience the upside of breathing in. This is a simple explanation of polarities.*



*There are hundred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olarities that have been mapped. Generally, one can recognize a polarity if a situation does not seem to have a clear answer or there appears to be a repeating pattern that oscillates between the interdependent pair. For instance, there is an inherent polarity between change and stability. Which is better? One pole is better as long as it provides the organization the upside of that pole. Some may prefer stability. The dynamic system, however, indicates if we do not add small changes and improvements to the system, we will experience stagnation and perhaps obsolescence. If we veer to the change pole too much, our people experience change fatigue and possibly confusion over changing processes. The "solution" then is to find the balance -- "both/and" not "either/or." The work Dr. Cary and I do is to help leaders think in these nuanced more complex ways. Polarities is just one model we use.*

2. Please summarize your experience with our alumni participation at the training. And for the convention as well, if it is OK.

a. Dr. Cary - *The people at the registration desk were fabulous! Welcoming and kind. The alumni were engaged and jumped right into the exercise. They then created their own polarity maps, and showed they understood. I loved the dancing!*

b. Dr. Potter - *We both fondly remember feeling warm welcomed from the minute we arrived until we left. In our conference session, participants were curious and engaged. Many audiences find the topic of polarities difficult to comprehend. However, Polarity Thinking is the same concept as yin and yang that is embedded in the Korean culture -- including your flag. Once this connection was made in the session, participants immediately understood because they could draw from their cultural knowledge. For this reason, I believe Korean medical professionals have a distinct advantage at seeing and helping their organizations manage the inherent polarities within the American medical system.*

3. Here are some questions from our alumni members:

a. For Dr. Cary - As an M.D. you chose a career different from regular path. Can you share the reason or event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In fourth grade I decided I wanted to be a family doctor in a small town, which I achieved. I wanted to do more, and so earned an MBA, which opened the world up to me. I learned how important the people skills (sometimes called "soft" skills,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hard" skills such as anatomy, physiology and biochemistry) are in working with others - patients, colleagues, attending physicians. Communication abilities, influencing skills,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collaboration, creative problem solving, str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becoming an effective leader all rely on these people skills.*

b. For Dr. Potter - Tag-team training approach was a new experience to many of us. What do you think is the advantage, and how did you two get to work together in this? *This is an easy answer for me. I was initially contacted for this work because of my work in well-being at work for George Mason University. However, I have no medical expertise. Immediately, I thought of my friend and colleague, Dr. Cary (Maggi). I said to Dr. Nam that she was a better candidate for this presentation. Yet, as Maggi and I spoke,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do together.*

*I love to collaborate with intelligent and gifted colleagues like Maggi. She and I have similar strengths - teaching and coaching - and different backgrounds - medicine versus organizational systems. Whenever we work together, we build upon one another's strengths and differences to provide a better product offering.*

*For instance, when we were asked to provide this session on leadership, I shared an observation based upon my knowledge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cultures and the difficulties that those who come from collectivist cultures have being seen as leaders in individualist cultures like the U.S. Then Maggi shared her knowledge about polarities and how this seemed like a polarity. We both saw immediately that we could combine these two concepts into something that is useful for Korean medical doctors, who work in the American medical system. Coming to a better solution through a collaboration is what we encourage leaders who we work with to*

*do, and we "take our own medicine."*

c. Younger generation of physicians may have a different idea and approach to leadership development. Can you share your thoughts?

Dr. Cary: *Yes, of course. Younger physicians are digital natives and are often more facile with the technology. If we think of adult development stages - Penny's expertise - younger physicians and younger people in general, are earlier in their journey of development. As Penny says, use the differences as an opportunity.*

Dr. Potter: *They do and I see two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they are mostly in different levels of adult development than their mature counterparts. Another reason is they have grown up in a more connected world - literally a different culture than we. Therefore, they see the world through a different lens. My suggestion is to treat the differences as an opportunity. We know from research studies that the best teams have more diversity, manage conflict productively, and produce better products and solutions. What might happen if we welcomed and coordinated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to find better solutions?*

4. Ideal leadership models continue to change. Please explain the differences you have witnessed in recent years, and current trends in leadership training.

a. Dr. Cary: *Many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focus on "horizontal development," which is learning specific skills - transferring information to the leaders. Current trends in leadership development focus on developing as a person, sometimes called "vertical leadership." Moving vertically is about expanding the leader's thinking capability, developing the ability to think in systemic, strategic, complex and interdependent ways, which is where polarity thinking comes in.*

Nick Petrie, an expert in vertical development writes, "If horizontal development is about transferring information to the leader, vertical development is about transformation of the leader." Current leadership development aligns more with adult learning, or andragogy. Penny is an expert in adult development, which aligns with vertical development.

b. Dr. Potter: *Exactly, Maggi. So many leadership models take a traditional training approach in which participants hear the concepts and expect they can be different when they are back at work. I liken the difference between horizontal, "additive" development and vertical, "integrative" development to computer programs. Traditional training is like installing a new software program - it helps the leader to do one specific thing better. Vertical development is like upgrading leaders' operating systems - it allows leaders to do everything better. It is more of a process than an event. We know some (but not all) of the ingredients that promote vertical development, and polarities is one ingredient.*

5. It is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theory re: leadership style and training was developed from the business industry. While Healthcare sector should practice sound business principles to survive and prosper, there should be some important differences in leadership styles compared to other business industry. What is your opinion?

a. Dr. Cary: *My observation is that people generally learn leadership/management skills by watching others, and exhibiting others' behavior, whether effective or not. Medical school selects for those with excellent academic records, not those with excellent people skills.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have a "hidden curriculum," which are lessons not formally taught. These include norms, values, beliefs and culture. One example is attitudes toward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not from the main culture. Another is the way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are taught to behave toward patients. The formal lesson is to listen and be courteous. The hidden curriculum is around mocking patients and interrupting them as they speak.*

b. Dr. Potter: *Yes, and this is the work of any industry of experts - to develop a "dual operating system" of expertise in a specific field and develop one's own leadership capabilities. The key issue in the medical field is that leadership is not taught in medical schools (although Maggi is trying to change this). Added to this is that the medical field is evolving at a complex and rapid pace, which requires better leadership to coordinate divergent perspectives and changing situations. It becomes like a cat chasing its own tail.*

6. From your leadership training experience do you think there are social, cultural differences in Korean/Asian American leadership characteristics? If yes,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 Dr. Cary: *I'd rather state observations, rather than attribute "positive" or "negative." Each aspect may be one and the other, depending upon the context. One aspect I've seen in East and South Asian cultures is more parental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around education and career choice. This tendency is either/neither positive/negative depending upon the context. As a Caucasian female born in the United States, I understand my culture better than others. I have traveled extensively and, before I go, learn what not to do and how to present myself. That doesn't mean I'm knowledgeable. It means I'm (maybe!) less likely to make a faux pas.*

b. Dr. Potter: *I agree with Maggi. What we know from Hofstede's research on cultural dimensions (<https://www.hofstede-insights.com/product/compare-countries>),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Western cultures. Whether these differences are negative or positive depends upon the organization one works in and what is valued. One "solution" is to begin to see our cultural embeddedness and develop the ability to learn other leadership moves that work within that culture. Another solution is to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that might help the organization achieve better results. Knowing which to lead with is the wisdom we continually work to develop throughout our lives.*

7. People say the leadership style is a combination of born character and learned trait. Do you agree? If yes, what would be the magic ratio that successful leaders have between the two?

a. Dr. Cary: *Yes, combination of genetics and learning. There's no universal magic ratio. It's individual. For example, someone may have inherited the worst DNA possible, and yet transcend that through learning, and probably epigenetics. Someone may be a "golden child" and yet unable to be an effective leader.*

b. Dr. Potter: *I believe each person has the ability to develop their own unique way of leading. Again,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leader with his/her environment. Some are naturally big and bold; some are quiet leaders. Different environments require different leaders. Winston Churchill was not considered a good leader until the crisis of World War II. So we can say that Churchill was a good leader in crisis, and perhaps not as much in peacetime. The challenge is for leaders to find environments in which they can thrive and flourish and bring their best selves. The challenge for organizations is to recognize and reward all the different types of leaders.*

8.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change individual's character. Do you think leadership/mentoring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become good leaders?

# 2018~2019 정균희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 1950 나수섭 한원봉 1952 박종식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박병원 양거영
- 1956 김신형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주창준
- 1957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임종식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순옥 김시현 김윤범 김학륜 김해압 류치열 문석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재룡 강상진 나길진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한섭 박용순 반용균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이교락 이종수 임낙중 정태진 채규철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영환 김택경 김홍석 박형순 박준명 염극용 이광준 이경화  
이덕송 이상일 이종석 임필순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광동린 계훈택 고의걸 김성준 김예흠 김영철 김유홍 김화섭 박장생 박준한  
박호성 서휘택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철희  
이한수 이회백 임필순 장성환 장태환 조은순 정두현 정철용 진창건 최공창  
최성덕 최용성 최태순 한수용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종승 박찬형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상원 이상무 이영웅 이용길 장항순 정정수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계운 김승태 김재종 김주용 김태웅  
김태형 김현철 김택수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송용덕 서경석 선종철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범세 이병준 이수인 이순현 이재명  
이종두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정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강창만 권영덕 김용두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홍기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준오 이홍표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권오연 김길중 김덕진 김육현 박수안 신백효 윤원길 이광석 이범석  
이석우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한재은 홍수용
- 1966 김우신 김은한 김의신 김용재 김진수 김충규 민발식 윤락승 이병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의열 최순채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용 박정일 유 달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최무용 최승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재관 김영남 김진홍 김 철 김희주 노영일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대용 이병순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황훈규 홍광신
-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용 방덕환 서 량 송용재 안병일 양재관  
오선용 엽규동 윤효윤 이충호 이치훈 임용규 전덕성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박찬진 방준재 송요준 여준주 오석일 이병상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광승용 김성환 김유신 김일영 김재홍 김창구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오동환 오상현 윤기철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최영철 하준영  
황동하 홍성진
- 1972 고창범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인영걸  
장혜숙 정균희 정진우 정희현
- 1973 고용규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박진섭 서인석 송영자 심완섭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김원정 김자억 박인영 박종희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78 김동수 1979 이승호 1980 박남훈 신성식
  - 1981 남명호 이선희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박종효
  - 1988 서예경 1989 오부연 1991 강민종
  - 1999 박종철 2000 박은경 황필규 2001 김태곤
  - 2002 최태웅 2003 조수정
  - 2008 안아름 이익재 이준구 2009 송경민
- 는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36th CONVENTION DONATION

- 김운범(58) 100 김해암(58) 500 이만택(58) 200 이운순(58)1,000 채규철(59) 200
- 권기홍(60) 500 이종석(60) 100 황현상(61) 100 고희호(62) 100 박종승(62) 100
- 정정수(62) 300 김계운(63) 25 김태웅(63)1,000 조한원(63) 500 권정덕(64) 200
- 이홍표(64)2,000 최준희(64) 160 허선행(64) 200 전영균(65) 100 김진수(66) 100
- 이건일(68) 500 윤효윤(69) 100 강창홍(71) 100 김성환(71)1,000 김일영(71) 500
- 김창구(71) 100 배성호(71) 100 윤기철(71)1,000 이원택(71) 75 장문석(71) 50
- 고창범(72) 300 박찬호(72) 500 석창호(72) 500 오용호(72)1,000 이기진(72)1,000
- 정균희(72)5,0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문대욱(73) 300 박진섭(73) 300
- 서인석(73) 500 구재훈(74) 300 김원정(75)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1,000
- 한승신(76)2,000 김동훈(77) 300 차민영(82)5,000 안상훈(94) 200
- 남가주지부 2,500 서울대학병원 1,000 서울의대동창회 3,000
- 두산연강재단 3,000 Medtronic 2,500
- 저서관매 [저자: 안병일(69), Mrs. 김영애, 이원택(71), 정균희(72)] 140

### GENERAL DONATION

- 박종식(52) 250 노용면(55) 200 김신형(56) 200 서상철(56) 75 임종원(57) 75
  - 김석희(58) 100 김순옥(58) 125 김해암(58) 50 문석면(58) 150 신상교(58) 500
  - 이운순(58) 250 최창송(58) 500 강상진(59) 275 강재룡(59) 125 김교안(59) 50
  - 김병석(59)4,356 이교락(59) 125 채규철(59) 200 최용천(59) 50 최종진(59) 225
  - 한성업(59) 100 권기홍(60) 500 이경화(60) 75 한성수(60) 75 이재승(61)2,000
  - 정철용(61) 125 진창건(61) 75 황현상(61)125 김한중(62) 200 민경환(62) 75
  - 박종승(62) 100 박찬형(62) 100 이영웅(62) 125 권영조(63) 500 김현철(63) 75
  - 송용덕(63) 100 선우건영(63)125 신경호(63) 200 이범세(63) 125 장인호(63) 75
  - 진병학(63) 100 선우세현(64)250 이홍표(64) 175 임병훈(64) 100 전희택(64) 250
  - 최준희(64) 175 최준희(64)4,356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안병환(65) 200
  - 이재진(65) 200 이한승(65) 250 임현재(65) 100 정길화(65) 100 김의신(66)1,000
  - 장한교(66) 75 정량수(66) 75 조관상(66) 50 강명식(67) 75 김성철(67) 75
  - 서윤석(68)4,356 이병순(68) 100 이상훈(68) 175 차재철(68) 75 박수용(69) 375
  - 최종일(69) 100 서 량(69) 275 전덕성(69)1,000 김형달(70) 100 박찬진(70) 75
  - 조남현(70) 50 오석일(70) 300 광승용(71) 200 이성길(71) 980 오용호(72) 200
  - 임준형(73) 125 유영준(74) 50 박인영(75) 50 유영걸(76) 50
- \*김의신-멘토상 수상 상금 전액 \*이성길-Silent auction profit  
\*김병석, 최준희, 서윤석: 제5회 합춘미주공로상 상금 전액 각 (500만원=\$4,356)

### CHARITY FUND

- 최창송(58) 500 채규철(59) 200 최태순(61) 25 박종승(62) 100 김현철(63) 75
-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75 김창구(71) 100
-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 SCHOLARSHIP FUND

- 김학륜(58) 100 김은섭(59) 100 채규철(59) 200 이재승(61)1000 황현상(61) 200
- 박종승(62) 100 이기범(62) 375 김재종(63) 75 한기현(63) 125 양운택(64) 100
-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이광준(65) 75 이영균(67) 100 서윤석(68) 500
- 홍광신(68) 100 배성호(71) 100 오동환(71) 500 조남현(71) 100 조세진(71) 125
- 김효순(71) 125 김웅진(74) 100 유영준(74) 125 김자억(75) 500
- 정병욱 Family Fund 10,000

###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100 채규철(59) 200 이종성(60) 75 박종승(62) 100 이용길(62) 200
  - 안연승(64) 25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차재철(68) 200
  - 김병오(69) 100 배성호(71) 75 서인석(73)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 박남훈(80) 375 남명호(81) 200 서귀숙(84) 100 오부연(89) 500 박종철(99) 50
  - 박은경(00) 100
- \*오부연: 제2회 학장상 상금 전액 \$500

### AASCDFT DONATION

- 차재철(68) 75 김정아(76)10,000 한승신(76)10,000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 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yPal에서 은행 구좌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데 Fee를 떼고 들어오므로 장부 정리에 고충이 많습니다.

work. I personally love to present the power of inquiry (the coaching approach) and help leaders see that although it looks easy, it is actually a complex skill that facilitates one's vertical development. Other topics are leading with strengths

#### 10. If we invite you again, will you accept it?

Dr. Cary: Thank you for asking this. Our acceptance depends upon timing and our availability.

Dr. Potter: As we stated previously, we both enjoyed being welcomed into your community. We would love to collaborate and finds ways to provide value for your membership. A dilemma we face is that one or two hours is not enough time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One idea might be to advertise ahead for a yearlong leadership program. The session at your next conference could be the kickoff to that program. This is just one idea. We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you to see what else would provide value to your participants, and allow us to do the work we enjoy doing.

#### 11. Any other comments for the alumni interested in becoming leaders in the healthcare field?

Dr. Cary: Becoming a leader is about becoming a person.

Dr. Potter: No matter how much experience we have, we are always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next best version of ourselv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oughtful answers and recommendations.

a. Dr. Cary: Being a leader is about doing the right thing wherever you are. You can be a leader anywhere; it doesn't have to be at the top of a pyramid. The two most important traits are competence in the area where you're leading and integrity, or the inside and outside of you being the same. The employees of one of the best leaders I ever worked with told me "Charlie is always fair. I may not agree with what he does, but I know it's fair." And "If Charlie tells you he's going to do something, you can take it to the bank. His word is gold." How many times does each of us fail to deliver on a promise? I think nearly anyone with insight into themselves, and the willingness to accept responsibility, can be a leader. Mentoring and coaching each have their place.

b. Dr. Potter: I would never recommend that any of my clients change their character. What I recommend is that they become the best possible version of who they are and bring those gifts to those they lead. Too often leaders look outward to others as role models for leadership. What we coaches do is to help the leaders see the gifts of one's unique character that lie within. Then we work together to help the leader bring forth those qualities.

9. We hope to continue leadership training session for younger alumni at our annual convention. Any suggested topics? Any suggestions for women's leadership in the healthcare setting?

a. Dr. Cary: Coaching as a Leadership Style, Imposter Syndrome, Women's Ways of Leading

b. Dr. Potter: Maggi has several topics she presents to medical professionals in her